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473호
Thursday, January 22 2026 A

불법체류자, 인종 보고 단속하나

"피부색·영어발음 다르다"
막무가내 불심검문·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인종에 기반한 불심검문과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카운티 검사장도 카운티 공무원이 부당하게 연행됐다며 국토안보부(DHS)에 유감을 표했다.

KTLA와 LA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DHS 소속 요원들은 표식 없는 차량을 타고 애나하임의 한 세차장에 불시에 나타나 직원들을 쫓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항의했지만, 요원들은 직원들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연행을 시도했다.

세차장 측은 요원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유지에 진입해 직원 연행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DHS 소속 요원들이 애너하임의 한 세차장에서 직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KTLA캡처]

이후 요원들의 무리한 불심검문은 바로 옆 차량 정비소에서도 이어졌다. 요원들은 정비소에서 근무하던 라틴계 직원에게 다가갔고, 해당 직원이 항의하자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이 몰려들어 요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차량 정비소 매니저 제임스 페리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연행될 뻔한 우리 직원은 시민권자"라며 "요원들은 피부색과 영어 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하려 했는데, 이는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차장과 정비소 직원들은 ICE 요원들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민 당국의 이른바 '묻지마식' 불심검문은 LA카운티 공무원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LA카운티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는 지난주 ICE 등 연방 요원들이 위티어 내로우 공원 등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불심검문을 벌였다며, 카운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도 지난 16일 카운티 검찰 소속 직원이 ICE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며 DHS의 무리한 단속을 비판했다.

김형재 기자

"한국, 환율압박으로 올해 200억불 대미투자 연기할 것"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모와 개시 시점을 유연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택항에 세워진 수출용 자동차들 [연합뉴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대미 투자 연기 가능성을 재정경제부에 문의했으나,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구 부총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말 눈소식 "준비되셨나요?"

기상청, 상황 따라 변화
24·25일 각별 조심 요망

워싱턴 지역의 이번 주말 눈 소식을 놓고 관공서와 기업, 그리고 주민 할 것 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설 지역과 강도, 시점 모두 불확실하지만 기상당국은 "불확실한 자체가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이번 눈 소식의 핵심은 24일 오후부터 25일 밤 늦게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눈폭풍이다. 21일 현재 예보상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워싱턴 DC를 비롯해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이 포함되는데, 특히 동남부와 서북부 지역에 집중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곳에 따라 6인치에서 1피트의 적설량이 점쳐지고 있다.

기상 당국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망은 어렵고 다만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눈이 내릴지, 아니면 훨씬 심각한 눈이 내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날씨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극심한 한파다. 23,24,25일 아침 기온은 화씨 10도대 안팎으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결빙과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위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편, 기상 당국은 23일경 예보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만약 주말 눈이 온다면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김성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집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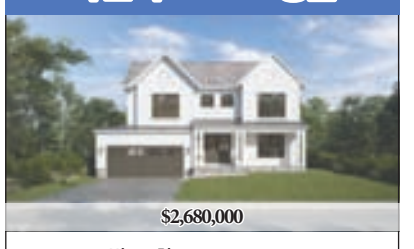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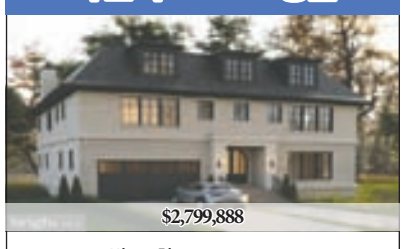
세차장 사업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구입하거나 매물 주시면 구입/매매 해드립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임대료 월$5600, 가게 위치좋고 아담합니다

고급 사무실 임대
창고 자리 전문 | 식당/ 리테일 자리 전문

투자용 상가 건물
·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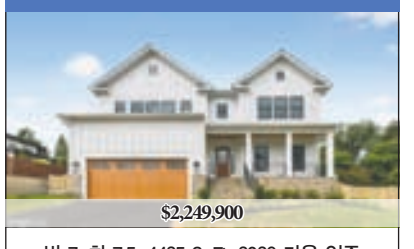
비엔나 NEW 상글

$2,680,000
방 6, 화 5.5, 4218 SqFt.
아주 좋은 위치, 메디슨 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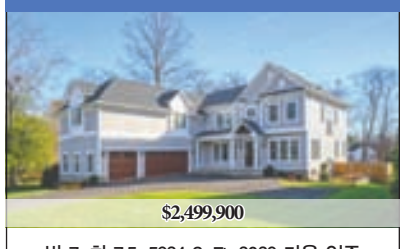
비엔나 NEW 상글

$2,799,888
방 6, 화 6.5, 5133 SqFt.
비엔나 ES, 모던 럭셔리, 아주 좋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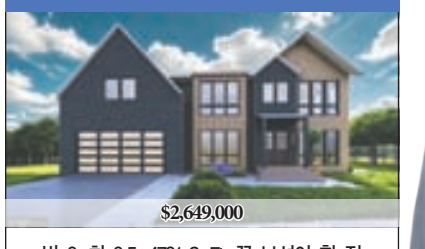
"신축 주택은 주거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기성 주택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마감재 이면의 시공 상태부터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새집' 이라는 상징성보다 '건축물 본연의 완성도' 에 집중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으로
봐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비엔나 NEW 상글

$2,249,900
방 7, 화 7.5, 4425 SqFt. 2026 가을 입주
메인레벨에 풀베쓰와 방이있는 밝은 집,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499,900
방 7, 화 7.5, 5324 SqFt. 2026 가을 입주
수영장과 아웃도어를 위한 자리,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649,000
방 6, 화 6.5, 4791 SqFt. 꼭 보셔야 할 집
완벽한 위치에 오픈 컨셉 디자인, 백야드 풀 가능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알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유럽 잘못된 길 간다는 트럼프 "그린란드 지킬 나라 미국뿐"

"덴마크, 돌려줬더니 배은망덕"
골든돔 건설 의지도 재차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외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미국의 힘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2주 전 베네수엘라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의 핵심 전략적 요충지에 별다른 방어 조치 없이 위치한 그린란드에는 수백 피트 아래 희토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게 우리가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니다"며 "우리는 전략적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 확대를 막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 병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린란드라는 지역뿐"이라며 "나는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며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린란드 병합 목적의 군사력 동원 카드는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독일 공격에 맞서 미군을 보내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수호했다"며 "전쟁 뒤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지만 (덴마크는) 배은망덕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유럽을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지만 현재 유럽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십년 동안 워싱턴과 유럽의 수도에서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부 지출,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 그리고 끝없는 해외 수입을 통해서라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국가들을 "우리의 파트너"라 언급하며 "그들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우리와 대규모 거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런 합의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는 화상으로 참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참석한 건 6년 만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한국은 아니라는데 …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사업 돈 댈 것"

트럼프 "한·일서 사업 자금 확보"
정부는 "하이리스크, 협의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한국·일본과 무역협정을 통해 합의한 대미 투자를 자신이 내세운 관세 정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일은 미국과 무역협정 과정에서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말한 직후 양국의 투자 유치를 언급해, 해당 투자금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업적'이라고 적힌 종이 뭉치를 들고 1년간의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한국·일본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며 1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는 21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유럽·일본·한국 등과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대규모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투자 협약을 맺으며 미국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성이 있는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과 '합의'가 아닌 '협의'하는 조건이라, 한국의 의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천연가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1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반, 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한국·일본·대만 등이 가스를 구매하는 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한국 정부는 채산성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여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현재로선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산업부는 "당시 발언에서 더 나아간 것도, 관련 협의도 없었다"며 "투자처와 규모 등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환율 압박으로 올해 예정된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외환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킨 원동력으로 관세를 꼽았다.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는 핵심 동맹인 영국·프랑스 정상을 비판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 튀르키예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적 발언을 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 트럼프는 앞서 소셜미디어(SNS)에 마크롱과의 문자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마크롱은 메시지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WEF 기간 G7(주요 7개국) 논의를 제안했는데, 트럼프는 거부했다. "마크롱은 (대통령직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다.

트럼프는 "북한도 강력한 국경이지만, 세계 어디에도 우리 같은 국경은 없다"고 했다. 자신의 국경 정책 성과를 북한의 국경 통제와 견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코스트코 전자기기 보상판매 인기

코스트코가 전자기기 보상판매(Trade-in) 프로그램 'Phobio'를 통해 노트북, 스마트폰 등 중고 기기를 반납하면 코스트코 샵카드(Shop Card) 크레딧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 한도는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며, 랩탑은 최대 2550달러, 데스크탑은 1125달러, 스마트워치 931달러, 스마트폰 920달러, 태블릿 500달러 등이다.

코스트코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용자는 기기 모델과 상태를 입력해 즉시 견적을 받은 뒤 거래를 수락하면 된다. 이후 3~5일 이내 무료 배송 라벨을 출력하거나 포장 박스를 받아 기기를 발송하고, 검수센터에 도착하면 검사 및 데이터 삭제 절차를 거쳐 디지털 코스트코 샵카드로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샵카드는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손 기기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접수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 후 기기 상태가 최초 입력과 다르거나 중대한 손상이 확인되면 최종 보상액이 조정되거나 기기가 반송, 재활용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코스트코 회원이 아니어도 온라인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1월 22일(목)54-29

23일(금)	45-12		26일(월)	25-9	
24일(토)	20-13		27일(화)	28-14	
25일(일)	20-17		28일(수)	30-14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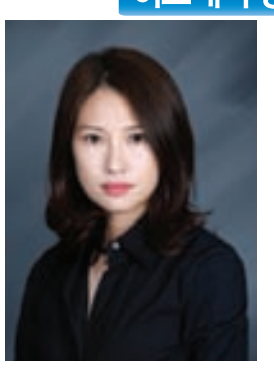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T.703-449-7629)

SALE 독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독점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VA, 올해 세 번째 홍역 사례 확인

우드브리지·폴스처치
해외여행 다녀온 아동

버지니아주 보건부(VDH)는 20일 올해 들어 세 번째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VDH는 해당 환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4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우드브리지와 폴스처치 지역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해당 개인과 접촉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연락하여 홍역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노출 장소와 날짜는 우드브리지 PM 소아 응급 진료소(1월13일), 폴스처치 이노바 어린이 응급실(1월15일), 폴스처치 이노바 페어팩스병원 아동관(1월17-18일) 등으로 보인다.

VDH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증상이 나타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일부터 2월8일 사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이 있었던 장소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감염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역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7-14일 이내에 나타나며 고열, 기침, 콧물, 눈물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고, 이후 작고 붉은 반점의 발진이 발생한다.

홍역은 MMR(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MMR 백신을 한 번만 접종받은 사람들의 95% 이상이 세 가지 바이러스 모두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용량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일반적으로 보호 수준을 98%까지 향상시킨다. 홍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vdh.virginia.gov/measles/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사망 사건 여파

메릴랜드 디지털 방식
신원확인 법안 추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후, 메릴랜드가 연방요원의 익명성 문제에 디지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메릴랜드 하원의회 다수당 대표인 데이빗 문 의원은 최근 "폭력적 또는 위법·위헌적 행위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신원을 각종 디지털 흔적을 통해 보존·확보해 피해자가 민·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이른바 '디지털 언마스킹(digital unmasking)' 법안을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원확인 데이터에는 차량 번호판 정보,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 데이터, 이미지 검색결과, 얼굴 인식 등 연방요원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구 가능한 데이터가 폭넓게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메릴랜드에서는 연방요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 표시를 최소화한 채 단속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문 의원 측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기술을 동원해 신원확인 데이터를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미 기자**

래리 호건 "모든 공직자 선거 출마 안한다"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낸 한국 사위 '래리 호건(사진)'은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 주지사의 재선에 도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호건 전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메릴랜드 주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지만, 다시 공직에 출마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일부 메릴랜드 주민들이 호건 전 주지사에게 11월 재선에 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볼티모어 일간지 '선'에 게재된 논평에서 호건은 메릴랜드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라며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지만, 이제 과거나 아닌 미래를 바라볼 때라며, 메릴랜드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정당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썼다. **김성한 기자**

메릴랜드에서 순회영사 진행

2월 7일 엘리컷시티 MD한인회관

주미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오는 2월 7일(토) 메릴랜드 엘리컷시티 소재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신고 등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다. 필요 서류 관련 상세내용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업무별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 내용과 같다.

문의: 202-939-5653 주미한국대사관 영사부, 410-772-5393메릴랜드한인회 / 장소: 9256 Bendix Rd., Suite# 206, Columbia, MD 21045 메릴랜드 한인회관 **홍알벗 기자**

업무별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업무	지참 필요서류	수수료	비고
여권	구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여권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흰색 배경),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Priority 우편:$ 11.95)	- 일반 10년: $ 50 - 미성년자(18세 미만) 5년: $ 42 - 8세 미만 5년: $ 33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숙지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여권,(복수 국적자는 미국 여권, 출생 증명서) 추가 준비
공증/영사확인	유효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Priority 우편:$ 11.95)	- $ 2(위임장) - $ 4(인감 위임장) - $ 4(사실에 관한 증서 인증) - $ 2.50(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 한국 구 여권 또는 구 호적등본 지참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준비
가족관계 등록 발급/재외국민 등록	유효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Priority 우편:$ 11.95)	- 재외국민등록등본: $ 0.50 - 가족관계등록부: $ 1.00	*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 한국 구 여권 또는 구 호적등본 지참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준비
가족관계등록 접수 (혼인, 출생, 사망, 이혼 신고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서류 확인	없음	
국적상실신고	유효한 미국여권, 시민권, 여권사진 1장, 편지봉투(일반우표 2장 부착),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으로 성이 바뀐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지참	없음	* 한국여권 소지시 지참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준비
국적이탈신고	본인 미국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출생증명서, 여권사진 1장, 부모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편지봉투(일반우표 2장 부착),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의 기본증명서(상세),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8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권 및 유효한 한국여권 지참 필수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시민권 및 유효한 미국여권 지참 필수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준비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 #: 2425871

Happy New Year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Top 50 Mortgage Company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불안한 시니어 아파트, 범죄 무방비 노출

공용 세탁실 단말기 잇단 도난
외부인 통제 안받고 출입가능
24시간 경비 요구에 묵묵부답

올리브 아파트의 세탁카드와 동전 교환기가 설치됐던 자리. 맨 오른쪽 사진은 새로 설치된 세탁카드 충전 단말기. [주민 제공]

300명 이상의 한인 시니어가 거주하는 LA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공용 세탁기 충전 단말기가 잇따라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벌써 두 번째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전반의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말기 도난 사건은 올리브 아파트(740 S. Olive St)에서 발생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한인 시니어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1층에는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세탁실이 마련돼 있으며, 이곳에 설치된 공용 세탁기 충전 단말기가 최근 도난당했다. 앞서 두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충전 단말기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로 도난된 단말기는 카드에 코인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동전 등 현금이 다량 보관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도난 사건 이후 아파트 측은 현금 충전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로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교체했다. 그러나 지난주 해당 단말기마저 도난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두 번째 도난 사건 이후 세탁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입주민들은 외부의 세탁소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차량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아파트 외부의 세탁소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측은 최근 세 번째 세탁기 충전 단말기를 세탁실 내부로 옮겨 다시 설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은 단말기가 교체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김재문(72)씨는 "단말기를 다시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입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공지도 없었다"며 "이 아파트의 문제는 단순 도난이 아니라 관리와 소통 전반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도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방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일 본지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결과,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는 별도의 출입 통제 장치가 없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는 무단 출입이 잦고, 외부인이 아파트에 들어와 세탁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경비 인력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배치돼 있다. 입주민들은 반복되는 도난 사건을 계기로 24시간 경비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측의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주민과 매니지먼트 오피스 간의 언어 장벽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씨는 "한인 시니어가 많은 아파트인 만큼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입주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윤서 기자

건국 250년 희귀 사료들 LA 온다

'자유의 비행' 전국 투어
USC서 4월17일부터 전시
독립선언서·헌법 초안도

LA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희귀 사료 전시회가 열린다.

USC는 워싱턴DC 지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전국 8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자유의 비행 전국 투어(Freedom Plane National Tour)'를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USC 피셔 박물관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USC 측은 자유의 비행 전국 투어에 전시되는 희귀 사료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DC를 벗어나 LA에서 공개된다며, 남가주 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SC와 국립문서보관소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독립선언서 각인본(1823년) ▶제1차 대륙회의 결의문(1774년) ▶조지 워싱턴·알렉산더 해밀턴 등의 충성 서약서(1778년) ▶파리조약서(1783년) ▶헌법 초안 비밀 인쇄본(1787년) ▶헌법 승인 투표 기록(1787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료는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긴 활동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희귀한 국가 사료다.

특히 제1차 대륙회의 결의문은 당시 식민지 13개 주를 대표하는 대표단 53명이 모여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식민지 권리를 명시한 문서로, 미국 독립의 출발점을 알리는 사료로 평가된다. 파리조약서 역시 독립전쟁 이후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한 문서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헌법 초안 비밀 인쇄본은 미국 건국 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명문화한 사료로, 당시 필라델피아에 모인 각 주 대표단의 손글씨가 함께 담겨 있다.

USC 측은 자유의 비행 전국 투어를 통해 미국 독립 정신의 의미와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립 과정, 건국 250주년의 역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병수 USC 임시총장은 "USC가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전시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건국 역사를 담은 사료들을 통해 지역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핸드백 20만 달러어치 털렸다
뉴포트비치 명품점 절도 피해

지난 18일 오전 4시쯤 뉴포트비치의 한 명품 핸드백 판매점에 3명의 절도범이 침입해 20만 달러어치 상품을 훔친 뒤 달아났다.

ABC방송은 더 벨라 애비 & 에이바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 도둑들이 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고급 핸드백을 쓰레기봉투에 급히 채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점주 제니퍼 스프렌저는 범인들이 정확히 무엇을 노릴지 알고 있는 듯했다며 "그들은 바로 샤넬 코너로 가서 그곳을 싹쓸이한 뒤 에르메스 제품과 보석류를 모두 챙겼다"고 말했다.

절도범은 단 몇 분 만에 물건으로 가득 찬 봉투를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신형 BMW 4 시리즈와 머세이디스 벤츠 GLC 300 그란 쿠페를 타고 도주했다.

미국인 1/3, 부모 이혼 경험

아시안 17%, 백인 30%,
히스패닉 30%, 흑인 45%

1988-1993년생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이 18세 성년이 되기 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이전에는 성년 이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비율이 2%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2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부모 이혼 경험은 인종, 민족, 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안(17%)이 가장 낮았고, 백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30%, 흑인은 45%로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성인기 성과에도 통계적으로 격차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부모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동세대에 비해 20대 소득이 9~13%로 낮았고, 10대 출산 비율은 63% 높았다. 또 25세 이전 사망 비율은 35~55%로 높았으며, 교도소 수감 비율(0.46%)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 성향보다 이혼 이후 가정의 경제, 돌봄, 환경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연구에서는 이혼 이후 가구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부모가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됐다.

거주 이동도 늘었다. 이혼 경험 가구는 이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고, 이주한 지역은 기존 거주지보다 평균 소득이 약 7% 낮은 지역인 경우가 많았다. 또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이혼 가구의 새거주지가 상대 부모의 거주지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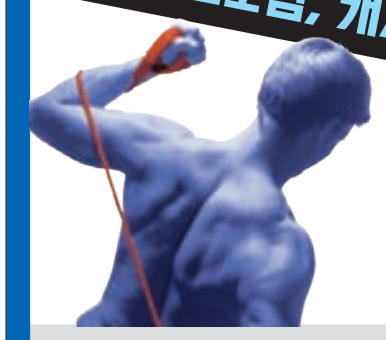
소득 계층에 따른 격차도 컸다. 연구진은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어린 시절 이혼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 20% 계층의 이혼 경험률이 상위 20%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연구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는 "아이가 어릴 때 이혼이 발생하면 가정이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줄고, 부모의 시간·관심도 감소해 장기적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미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 메디케어
여행자 보험, 메디케이드
각종 의료보험, 캐시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뇌졸증/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틀리 지역]

우리성모병원 멤버십 건강보험 대안 인기

월회비 195불로 진료·치료
병원 응급실·수술비도 지원
보험료 급등, 가성비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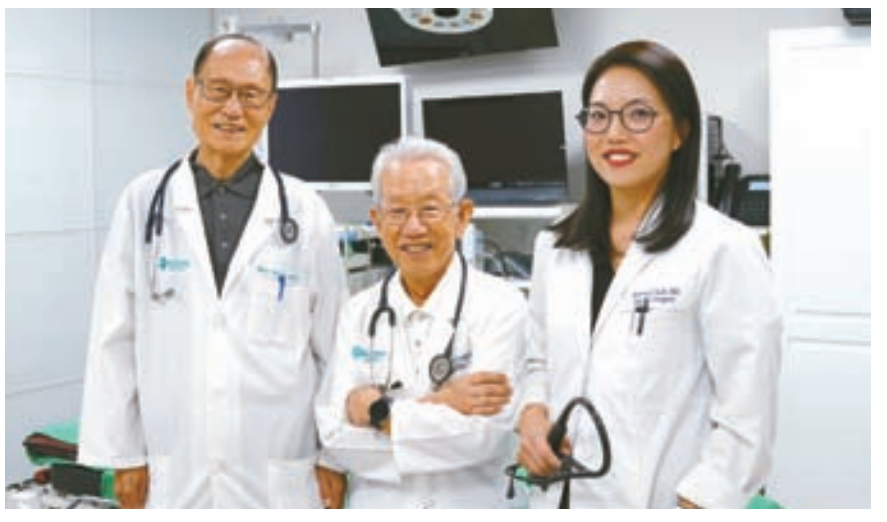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건강보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5년 말까지 적용됐던 '오바마케어'(가주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프리미엄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의 경우 매달 1500~2000달러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오히려 커진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이처럼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커버리지로 인해 실제 병원 이용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성모병원'이 제공하는 월 195달러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 한인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용 부담은 낮추고 의료 혜택은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년간 운영돼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멤버십은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월 회비가 동일(195달러)하며, 무보험 벌금이 없고 미국 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이용, 입원, 수술비가 지원된다. 또한 '우리성모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없이 진료, 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과 해지가 언제든 자유로운 점도 장점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은퇴자, 단기 체류자 등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이 가성비 높은 건강보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 병원의 임춘수 원장, 박노종 대표원장, 제시카 백 가정의학 전문의.

멤버십 프로그램과 관련해 박노종 원장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리성모병원'은 "외래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최신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원스톱 건강증진센터(One Stop Health Promotion Center)'를 운영해 기초진료부터 치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개원한 '우리성모병원'은 멤버십 가입자가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테메큘라, 뮤리에타, 리버사이드, 엘센트로, 유마, 애리조나 피닉스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해 있다.

현재 '우리성모병원'에는 박노종 대표원장(외과 전문의 / 가정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임춘수 원장(신경내과 전문의 / 가정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제시카 백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Family Medicine Physician) 등 3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문의: (858) 277-7111

글·사진= 케빈 정 기자

국립공원 '연간 패스' 외국인에 유리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거주자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조치가 올 들어 적용되면서 방문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지난해 12월 새 요금 체계를 정리한 안내문을 공개해 주요 패스·입장 방식·비용 차이를 안내했다.

▶비거주자 연간 패스 250달러

아메리카 더 뷰티풀 비거주자 연간 패스(America the Beautiful Non-Resident Annual Pass)가 신설됐다.

이 패스는 16세 이상 비거주자 및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간 250달러에 판매되며, 요세미티를 포함한 미국 전역 국립공원에 1년간 무제한 입장할 수 있다. 이용 범위는 차량 1대 전체 또는 이륜차(모터사이클) 2대까지 적용되며, 차량 단위가 아닌 개인 입장 기준 공원에서는 패스 소지자 본인과 동반 비거주자 성인 최대 3명까지 추가 요금이 없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11개 국립공원에서도 별도 추가 요금 없이 입장할 수 있어 장기 여행객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11개 국립공원은 한인들도 자주 찾는 요세미티,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옐로우스톤, 로키마운틴 등이 해당된다.

▶일반 입장권(Standard Pass)

단기 방문객을 위한 '일반 입장권'은 1~7일간 1개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차량 기준 35달러 기본 요금에 1인당 100달러의 추가 비거주자 요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 2명이 차량 1대로 방문할 경우, 기본 요금 35달러에다 추가 요금 200달러를 합한 235달러가 된다.

따라서 1~2명이 단기 방문할 때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단체 투어·상업 이용도 적용

단체 투어나 상업투어(CUA), 공원 지정 업체가 운영하는 투어의 경우 여행사가 비거주자 인원 수를 확인해 국립공원 측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연간 패스를 소지하면 패스 1장으로 본인 포함 4명까지(16세 이상) 추가 비용 없이 입장할 수 있어 투어 여행객에게도 활용도가 높다. 국립공원 측은 버스에 직접 탑승해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며, 요금은 제출된 서류상의 인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결국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 차량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계획이거나 여러 국립공원을 반복적으로 찾을 예정이라면 연간 패스가 유리하다. 1~2명이 단기간에 한 곳의 국립공원만 간다면 일반 입장권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한편 국립공원 입장권을 제시하거나 구매할 때 직원들은 이름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송윤서 기자

국립공원 입장료와 패스 요금

2026년 기본 입장 요금			연간 및 패스 옵션		
구분	요금($)	유효 기간·조건	패스 종류	요금($)	적용 범위 및 혜택
일반 차량 (Private Vehicle)	35	7일간 유효, 차량 내 모든 승객 포함	미국 거주자 연간 패스 (Resident Annual Pass)	80	모든 미국 국립공원·연방 휴양지(연간) 입장 가능, 1개 차량·승객 포함
이륜차 (Motorcycle)	30	7일간 유효, 이륜차 2대까지 적용	비거주자 연간 패스 (Non-Resident Annual Pass)	250	모든 국립공원·연방 휴양지(연간) 입장 가능, 차량 또는 최대 3인 포함
도보·자전거 등 개인 입장 (Per Person)	20	7일간 유효, 16세 이상	시니어 연간 패스 (62+ Years)	20	미국 거주자, 연간
16세 미만 어린이	무료	-	시니어 평생 패스	80	미국 거주자, 평생
현금 결제	불가	신용카드/모바일만 가능	군인/가족 패스	무료	현역 군인 및 가족

그린란드발 자본전쟁 공포 … '셀 아메리카' 미 증시·달러 하락

덴마크 "1억달러 미 국채 전량 매각"
미·유럽 갈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
"시장 패닉 셀링, 트럼프 향한 경고"
다보스 모인 금융권 수장들도 우려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양측의 영토 분쟁이 관세 갈등에 이어 '자본 전쟁'으로 옮겨 붙을 조짐이라서다.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20일(현지시간) 덴마크가 '금융 보복'의 포문을 열었다. 덴마크 학술인 연기금 아카데미 커펜션은 보유 중인 미 국채 1억 달러(약 1480억원)를 이달 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학자들을 위해 약 250억 달러 규모를 관리하는 연기금이다.

아카데미커펜션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안데르스 셸데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1억 달러는 월가 기준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사실상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 덴마크의 첫 실력 행사로 해석됐다.

앞서 18일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유럽이) 무역이 아닌 자본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무기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현실이 됐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전쟁과 이면에는 '자본 전쟁(Capital Wars)'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등 뉴욕의 3대 지수가 2%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는 20.09로 급등했다. 이 지수가 20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80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 값(달러인덱스)도 이날 내렸고, 미 국채 가격도 하락(금리는 상승)했다. 시장의 '패닉 셀링'(공포 투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JP모건 자산운용의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 밥 미셸은 "지난해 관세 발표로 투자자들이 동요했을 당시 당국이 대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시장 안정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19~23일)의 화두도 그린란드 분쟁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미·유럽 금융권 수장은 잇따라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ING그룹의 스테판 반 리스윅 최고경영자(CEO)는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 분쟁, 공급망 문제는 경제의 안정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무역 패턴을 바꾸거나 생산 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코메르츠방크의 베티나 오를로프 CEO도 "지난해 관세 사태가 준 교훈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미국과 유럽 간 자본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진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부적으로도 미국 자산 매각 시 손실 확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트럼프가 예고한 2월 1일 관세 부과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박유미 기자

"이제 그만해, 그린란드 안 팔아"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의류매장에서 'Nu det NUUK'란 문구가 새겨진 모자(왼쪽)가 진열돼 있다. 덴마크어 '이제 그만해(Nu det nok)'와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를 합친 문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비판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린란드 국기 아래 '이미 위대하다'(가운데), '판매 불가' 등이 쓰인 모자도 있다. [연합뉴스]

러트닉 "유럽이 보복 나서면 맞대응" 관세전쟁 경고

〈미 상무장관〉

마크롱, 미 압박에 "폭력배" 비판
그린란드 놓고 미·유럽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에 유럽 국가들이 보복관세로 맞선다면 '관세 전쟁' 확산 국면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20일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러트닉 장관은 "유럽이 보복관세를 실제로 단행하게 되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식 맞대응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이 검토 중인 보복관세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다만 그는 "결국 트럼프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사이의 매우 긍정적인 대화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반대하며 최근 그린란드에 군사훈련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 수입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유럽 8개국은 맞불 조치로 930억 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은 미국의 연이은 관세 협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폭력배보다 존중을, 야만보다는 논리와 법칙에 기반을 둔 세계를 선호한다.

신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도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표현을 빌려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트럼프)가 결정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형구 기자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 3천117명" 첫 공식 집계

이란 당국이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를 3천117명으로 집계했다고 A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순교자·참전용사재단은 시위로 총 3천117명이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군경 순교자' 및 '무고한 시민'은 2천427명이라고 밝혔다. 군경과 시민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래 당국에서 나온 첫 공식 사망자 집계로, 외부 기관 추정치보다 적다.

전날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시위 24일째인 전날까지 시위 참가자 4천251명을 포함해 총 4천519명이 숨졌고, 여기에 포함된 군경 등 진압 인원은 19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HRANA는 추가로 9천49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 중이다.

지난 19일 노르웨이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에 가담한 시민 중 3천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계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1만2천명으로 추산했고, 미국 CBS 방송은 최대 2만명이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통 관측을 보도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시위에 반체제 구호까지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지난 8일 자국 내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유혈 진압에 나섰다. 지난 12일 이후로는 이란 각지의 시위가 대체로 잦아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청소년 성장클리닉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든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AN 22nd - JAN 29th, 2026
Knotted®

(우유/바닐라)
생크림 도넛 3개입
FRESH CREAM DONUT 3EA
(MILK/VANILLA)
$7.99
$11.99
3 X 3.53 OZ

SMILE

(우유/바닐라)
생크림 도넛
FRESH CREAM DONUT
(MILK/VANILLA)
$2.99
$3.99
3.53 OZ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Sterling, VA
Centreville, VA
Chantilly, VA
Annandale, VA
Ashburn, VA
Ellicott City, MD
Catonsville, MD
Rockville, MD
Gaithersburg, MD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죄 적용 법정구속

1심 법원, 12·3 계엄 '내란' 첫 판단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
특검 구형량 15년보다 8년 더 많아
계엄선포 문건 위증 혐의도 유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15년)보다 8년을 더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며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됐고, 기본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진술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초 한 전 총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렸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 등 각 죄의 정범만 될 뿐 방조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형사33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로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가 실체적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선 한 전 총리는 선고 전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하길 원하나"라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뿐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먼저 전제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를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뒤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제안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도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최소한의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점, 계엄 해제 뒤 국무위원들에게 재차 부서하도록 설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려 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만류하고자 했다면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한 점도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헌법이 절대 금지하는 언론·출판 검열에 해당하고 한 전 총리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사흘 뒤 만들어진 계엄 선포 문건에 부서하고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되고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독재자 권력이 약해지면 내전이나 정치투쟁으로 회복이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위헌성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을 정함에 있어 짧은 시간(계엄이) 진행됐다는 점은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 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비상계엄을 종료한 일부 정치인, 위법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한 군인, 경찰에 따른 것이지 내란 가담자 덕분이 아니다"고 하면서다.

김보름·최서인 기자

'한덕수에 중형' 이진관 판사, 대장동 재판은 무기한 연기

변호인 감치 등 단호한 재판 지휘
"사이다" "유죄 심증" 평가 엇갈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의 공판 동안 '사이다 판사'라는 별명과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로는 지난해 2월에 보임했다. 보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장을 맡았고 대선 후 지난해 6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직후부터는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도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말하자 "장관이면 국정 운영의 최고위 공직자다. 그 발언이 적절하냐"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사이다 진행'이라는 평가와 '피고인 방어권 위축'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자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내란특검팀에 한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최서인 기자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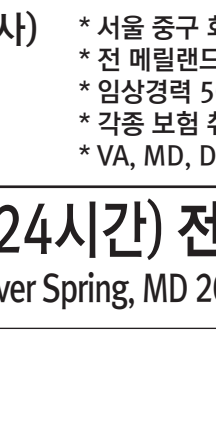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SOLD $660,000

방 4, 화 3,5, 차고2, 최고 학군, RT267/7, 덜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 새집 같음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털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멕 몰/RT95, RT1, Rt234 ,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UNI Medicare and Health Insurance Agency
www.UNIhealthplan.com

2026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01 은퇴준비 02 생명보험 03 메디케어 04 어뉴이티 05 롱텀케어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탑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MD 엘리콧시티 | 1/14 (수요일@5pm) 1/31 (토요일@10am)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www.uniwfm.com

VA (Fairfax)
703-865-8788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MD (Ellicott City)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VA (Richmond)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될 것, 퇴직연금으로 방어는 헛소문”

대통령 “환율 대책 있으면 했을 것 일본에 비하면 평가절하 덜 된 편”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집값 잡기 최대한 안하겠지만 필요하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인데, 다르게 전용하면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다면)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언급한) ‘50억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제가 한다는 이야기 아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대한민국 (높은)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에서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환율 대책**=“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이)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당국이)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 우리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연금 기금화**=“‘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 악성 가짜뉴스다. 퇴직연금이 문제이기는 하다. 보통 기금 수익률이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은 1%대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이다.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

▶**신규 원전**=“원전 문제가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김나한 기자

정교 유착 의혹엔 “반란 행위와 똑같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사랑하는 강훈식’ 차출론 질문엔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농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권력을 빼앗는 건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지난 14일 정부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사퇴한 뒤로, 당내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꿈도 꾸지 마라”(19일 추미애),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린다”(20일 김용민)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미정 상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무게 중심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쏠렸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10% 되더라도, 나머지 1800명 혹은 절반 이상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어찌 보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법원이 무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살아났다. 그게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거하면 된다”며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를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문제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야당에 대해선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로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듯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 대표지만, 당선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하자고 시도해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닥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게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권리인 줄 안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대한민국 분수령…민생·개혁과제 처리 앞장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새 원내지도부가 민생 현안, 각종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 “역대 가장 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신뢰를 보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번 만찬은 지난 11일 한 원내대표의 보궐선거 당선으로 꾸려진 새 원내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해서 마련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는 유자향 대방어 중뱃살 타르타르, 봄나물 냉이죽, 제주 갈치구이, 소갈비찜과 계절 채소, 진지와 금중탕, 한라봉 무스와 식혜가 나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만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건배를 제안했다.

락빌의 건강지킴이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www.drhwangki.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Dr. 황지연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룟,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 Amerigroup 받습니다.

연 회원제 주치의 프로그램

1단계 기본 (Essential)
- 연회비: $1,800 (월 $150)
- 포함: 연 2회 종합검진 (CBC, CMP, TSH, Lipid, HbA1c, UA, EKG), 원격진료 4회, 약물 검토•처방 갱신, 전문의•병원 연계
- 정기 관리 기본: 6개월마다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4회 예약창 제공

2단계 프리미엄 (Premium)
- 연회비: $3,000 (월 $250)
- 포함: 연 4회 종합검진 (동일 항목), 원격진료 8회, 독감백신 1회, 약물 검토•처방 갱신, 분기별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8회, 독감백신 시즌 내 접종, 전문의•병원 연계

등록비: $250 (1회)
Telehealth 추가비: 포함 회수 초과 시 $50/회 (사전 고지 후 $50/회 결제)
연장/갱신: 만료 45일 전 갱신 알림, 30일 전 취소 가능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

Hot Spot Hot Pot

"OG AYCE HOT POT JOINT"
"Original All You Can Eat Hot 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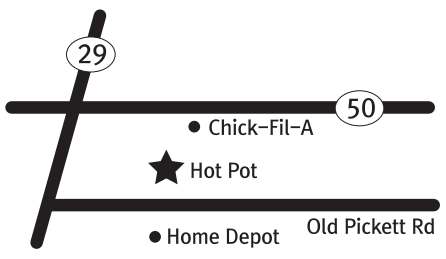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십여 년 전,
가장 먼저 무제한(AYCE) 핫팟을 도입한,
저희 식당에 아직 한 번도 안 와 보셨다구요?
그럼 신년 맞이 $19.99 무제한 런치 스페셜을
일단 드셔 보세요!

Limited Lunch Special
$19.99
월 ~ 금요일
11:30am ~ 4:00pm
*Seafood는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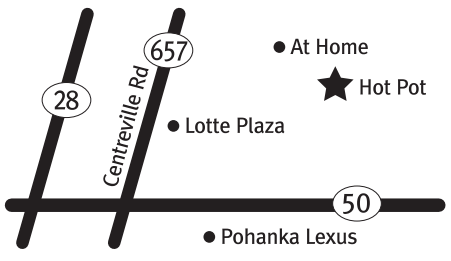
1. 일반적인 런치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
2. 따로 마련된 소스바에서 자유롭게 본인만의 소스를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3. 육수 종류도 마라육수, 샤브샤브육수, 얌육수, 김치육수, 미소육수, 버섯육수, 한방치킨육수 등 다양합니다.

오리지널 무제한 핫팟, Hot Spot Hot Pot으로 오십NO!

페어팩스점
3232 Old Pickett Rd., Fairfax, VA 22031
(페어팩스 circle, 홈디팟 맞은편)
703-537-0325



챈틸리점
13908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챈틸리 롯데 건너편)
571-287-7332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spotva.com)

"질문 더 받겠다" 173분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에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160여 명의 기자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오른쪽 사진은 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취재진. 전민규 기자, [연합뉴스]

"북에 저자세란 소리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북 핵포기하겠나, 개발중단이 이익"
"핵군축·비핵화 단계적 접근해야"
반도체 관세엔 "심각히 우려 안해"
"100% 올리면 미 물가도 100% 올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국면에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90%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해 놨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

▶북핵 문제="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지금도 연간 핵무기를 10~20개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익이다.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에서 쓰고 있다.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

▶한·중 관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참 유익했다.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방중 과정은)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서 큰 성과를 냈고,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여지는 것보다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했다."

▶한·일 관계="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론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일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윤성민 기자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 사실상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 일축

"광역통합 한꺼번에 하면 재정 충격"
반도체 단지 배치 뒤집을 순 없어"

▶대야 관계="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하고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행정 통합="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핵심은 재정 지원과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동력이 붙기 어렵다. 이번이 기회다. (재정에)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된다. 갑자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온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 봐야겠다."

▶반도체 클러스터="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낮은 20대 지지율="그들이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나. 결국 정치 또는 우리의 책임이다.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화된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한다.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리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20대에게)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길이다."

하준호 기자

'북 침투 무인기' 3인 압수수색…정보사 활동비도 조사

〈무인기 날린 A씨에 1000만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가 21일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TF는 A씨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정부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A씨와 제작했다는 B씨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다. 지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했다. A씨가 이사, B씨가 대표를 맡았다. 두 사람은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 근무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란 직함으로 활동했던 C씨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압수수색을 대상이 된 업체는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등기상 2023년 9월 설립된 이후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왔다. 이 업체는 2024년 11월쯤 이곳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는 A씨가 정보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9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씨가 지난해 4월 북한 동향을 전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자금이 지원됐다고 주장하면서다. A씨는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약 1000만원 넘는 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A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게 맞는지, 이 과정에서 정보사 등이 지속해서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시기와 A씨가 이사로 재직한 무인기 제작업체의 설립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정보사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당 매체 두 곳의 홈페이지는 모두 잠시 폐쇄됐다가 21일 오후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상혁·오삼권 기자

UMEKEN

위 건강도 소화도

이제, 동시에 케어하세요!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엑기스 + 비터멜론 (여주) + 5대 소화 효소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아밀라아제
락타아제

우메켄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5대 소화 효소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미야코섬 제도아리에 발효 양배추와 여주, 5대 소화효소를 더해
소화를 원활하게 돕고,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케어합니다.*

쓰린 속을 부드럽게, 더부룩함도 시원하게!
위장은 건강하리, 소화는 빠르리!

오키나와 우메켄 농장의 최상급 제도아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소화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
- 식곤증, 식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 (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장동혁 손잡은 이준석 "힘내시라, 쌍특검 공동투쟁안 마련"

장 '단식 7일' 산소발생기 착용
국힘, 구급차 불러 단식 중단 설득
장 "여기에 묻힐 것" 병원 이송 거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가 21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내십시오"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에 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민의힘의 출구전략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혈압 수치는 급격히 올랐고 당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강제 단식 종료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조배숙·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중진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 있는 장 대표에게 다가가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고, 나 의원은 "대표가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당을 이끌 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산소 발생기와 이어진 투명 호스를 코에 착용하고 있는 장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 대표를 이송할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3시58분쯤 장 대표를 옮길 이송 침대가 농성장에 긴급 투입됐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자"(나경원 의원)는 설득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농성장 주변에 모인 의원들에게 "대표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고 전했고, 결국 구급차와 이송 침대는 오후 4시8분쯤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도 대표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계속해 "여기에 묻힐 것"이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자 국민의힘은 출구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선 ▶장 대표의 단식을 대신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의 '릴레이 단식' ▶쌍특검 촉구를 위한 전국 당원 서명운동 등이 거론됐다.

이날 오전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곧장 단식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텐트 안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치고 장 대표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단식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최선을 다해 준 의지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걸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권은 이날도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단식 농성장은 방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비판했다. 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신에 입각해 왔다"며 농성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국민통합을 외치며 제가 단식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할 때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만나 "건강을 조심하라"고 격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 양수민 기자

여당,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착수

〈윤리심판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선 정 대표가 별도의 공개 언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썼다. 최 의원은 이어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3조는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장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한 위원장과 윤리심판원에 질의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땐, 세수 1253억 줄어도 기부 2900억 늘 것"

〈유산 기부 땐 상속세 감면〉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기부 활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산기부가 세수 감소보다 2.3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공익 재원이 늘어나 사회로 돌아가는 편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여야가 협치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속재산(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에서 레거시 10을 시행한 2012년 유산기부액이 23억2000만 파운드에서 10년 후 45억 파운드로 늘어난 데서 착안한 제도다.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에 국내 복지·자선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여야 간사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한국형 레거시 10은 상속세 10% 감면에 따라 세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집계하는 2024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 88위(기부지수 38점)로 세계 평균(4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부 빈국'이다. 특히 한국은 전체 상속재산(과세표준 기준)에서 유산기부 비중이 약 1.46%에 불과하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는 '레거시 10' 도입 당시 '세수 감소의 우려보다 민간 자본이 노숙인 지원, 난민 구호, 장애인 복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사용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과 정부 예산 효율성 증대가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그대로 됐다"며 "한국형 레거시 10도 '사회적 상속'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용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유종옥 종합보험
2025 A Return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른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잠실주공5 42.5억, 토허구역 뒤 더 뛴 강남집값

〈전용면적 76㎡〉 〈서울 전역 확대〉

편차 심하지만 집값은 오르는 추세
"규제효과 오래 못가, 전월세만 자극
공급 꾸준히 늘리는 게 가장 중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대책을 발표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대책이 발효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1만 건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신고하기까지 50일가량 걸리는 만큼 현재의 '깜깜이 시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경우 지난 5일 42억5000만원에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15대책 이후 12월 말까지 총 9935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가 25개 구에 접수됐다. 노원구(993건)의 아파트 거래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764건), 성북구(689건), 강서구(685건), 구로구(526건), 서대문구(516건), 은평구(501건) 순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동네의 거래가 활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15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한 것처럼 보인 건 착시 현상"이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계약 체결이 뒤로 밀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고,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잡으려던 강남 집값은 더 올랐다. 대출이 막히고 갭투자가 불가능한데도 현금부자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렸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을 기준으로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1월 2.68%, 12월에는 4.29%로 치솟았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11월 1.49%, 12월 1.5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는 11월 5.42%, 12월 1.29%로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유지했다. 강북 10개 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는 11월 1.48%, 12월 0.77%로 약보합을 기록했다.

실제 거래허가 신청 가격을 살펴보니 가격 편차가 심하지만, 집값은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4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의 허가 신청서가 두 건 접수됐는데 한 집은 34억7000만원에, 다른 집은 40억5000만원에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한 가격은 34억4000만원, 40억3000만원으로 허가 때보다 낮아졌지만 가격 차이가 약 6억원에 달한다. 구로구 한마을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지난달 16일 6억9000만원에, 지난달 19일 8억원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1억1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향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요인으로만 보기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며 "'깜깜이 시장' 탓에 정확한 정보를 몰라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거래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지난 5일 42억5000만원에 거래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고가인 42억2700만원을 넘어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거래가 위축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거래량은 위축돼도 가격 상승 압력은 다른 데로 빠지지 않아 더 상승하는 부작용을 보인다"고 말했다. 구강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요를 눌러봤자 규제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전월세 시장만 자극하는 등 역효과만 났다"며 "애당초 무리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포함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10·15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동향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주택의 호가도 반영돼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한은화 기자

애들 가방에, 몸 속에 … 이렇게 숨기다 걸린 마약 3.3t

분홍색 아동용 백팩, 운동화 깔창, 심지어 신체 내부까지.

지난해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돼 국내로 반입되려다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3.3t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는 약 1억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적발량이 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마약이 총 1256건, 3318㎏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46%, 321% 늘었다. 적발되는 마약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적발량이 26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313㎏), 케타민(144㎏), 대마(118㎏) 순이었다. 특히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케타민, LSD 등 일명 '클럽 마약'의 적발량이 163㎏으로 1년 전(79㎏)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40대에서 자기 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62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적발량은 280㎏으로 1년 전의 두 배에 달했다. 여행객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체 내부에 은닉하는 이른바 '보디패킹' 수법까지 동원됐다. 적발된 마약류의 출발 국가를 보면, 대형 밀수 사례가 있었던 페루와 에콰도르를 제외할 경우 태국·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지방공항으로 우회 밀반입을 시도하는 대형 밀수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제주공항에서 캄보디아발 필로폰 3㎏이, 6월에는 김해공항에서 캐나다발 필로폰 30.6㎏이 적발됐다.

세종=김연주 기자

21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아동용 백팩·보드마카·쌈장(왼쪽부터 시계방향) 등에 마약을 은닉한 단속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전국 세관의 단속 조직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과거 음주운전' 임성근 셰프, 방송활동 중단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출연자 임성근(사진)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등 전과 논란이 커지자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임성근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이후 판결문 등을 통해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졌다.

임성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쌍방 폭행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추가로 공개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전력까지 포함하면 임 셰프의 전과는 총 6번이다.

임성근 측은 "약 30년 전의 일이다 보니 기억을 세세히 하지는 못했다"며 고의로 전과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성근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에 음주운전 전력을 미리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출연 전에 설문지 작성, 정신 감정 등의 (출연) 단계가 있다. (녹화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가장 최근의 개인적인 사고, 사건을 적는데 '2020년 음주 운전 적발'이라고 적어서 냈다"라고 말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넷플릭스는 이날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와 사전 검증 과정에서 2020년 발생한 음주운전 이력 1건을 확인했다"며 "그 외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은 사전에 고지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최대보상
개인상해 보상청구
Chapter 7: 개인 파산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루기

'뇌졸증'을 주의하자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쉽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으니, 바로 '뇌졸중'이다.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의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증상을 일컬어 위에서와 같이 '뇌졸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뇌졸증'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우울증, 현기증, 합병증, 골다공증 등에서와 같이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증상'이나 '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증'이 널리 쓰이다 보니 자연스레 '뇌졸증'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뇌졸중'이 바른 표현이다.

'뇌졸중(腦卒中)'은 다른 말로 '졸중풍(卒中風)'이라고도 한다. '졸(卒)'은 '갑자기'라는 의미이고, '중(中)'은 '적중(的中)'에서와 같이 '맞다'라는 뜻이다. '풍(風)'은 '바람'을 말하므로, 갑자기 바람을 맞아 생기는 병이 바로 '졸중풍'이라 할 수 있다.

'뇌'와 '중풍'이 합쳐진 '뇌중풍'은 뇌에 바람을 맞아 생긴 병이란 뜻으로, '뇌졸중'과 동일한 질병을 가리킨다.

'뇌중풍'의 '중'과 '뇌졸중'의 '중'이 같은 의미(中)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제 '뇌졸중'을 '뇌졸증'과 헷갈려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발언대

성장하는 경제, 소외되는 다수

정 레지나
LA독자

미국 경제는 분명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삶은 아니다.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3% 증가했다. 그럼에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미국인 네 명 중 세 명은 경기 침체를 체감하며 살아간다고 답했다.

2025년은 인공지능(AI)이 실험실을 넘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해였다. 실리콘밸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았고, 이를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AI 기업들은 기록적인 기업 가치를 경신했다. 기술적으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은 한층 자연스러워졌다. 올해는 AI가 기업 경영과 개인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고용 시장의 현실은 냉혹했다. 지난해 약 1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중 5만 명은 AI 도입에 따른 직무 소멸의 결과였다. 감원은 테크 업계를 넘어 공공기관, 소매, 물류, 금융 등 화이트칼라 전반으로 번졌다. 공식 실업률은 4%대 중반으로 안정적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0.5%로 치솟았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2~27세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다. 한 세대의 미래 소득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본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AI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M&A) 규모는 약 2조 3000억 달러에 달했다. S&P500은 16.4%, 나스닥은 20.36% 상승하며 변동성을 이겨냈고, 이는 고소득층 자산 증가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 시장의 관심은 AI의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기관들은 성장의 축이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의 그늘은 기업 파산 지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심리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비필수 소비재 기업과 소매업자들이 특히 취약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비용 절감과 할부 판매까지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평균 식사 가격이 20~40 달러 수준인 중형 식당들의 폐업도 잇따랐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지불 능력(affordability)'이다. 이는 단순한 물가 수준이 아니라, 가계 소득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말한다.

과거에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주택 상환 능력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경제적 생존의 기준이 됐다. 이미 오른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서민 가계의 부담은 올해도 완화되기 힘들다.

이런 괴리의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기술 혁신의 수혜가 자본과 고급 인력에 집중되는 반면, AI가 대체하는 일자리는 중하위 소득층에서 먼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 지형은 이미 프리미엄화(premiumization)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서비스와 상품에 집중한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과 고물가 속에서 경계로 밀려났다.

2026년 미국 경제는 새 연준 의장 인선, 금리 인하 압박, 대법원의 관세 합법성 판결, 유니콘 기업들의 기업공개 재개,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로 인한 의료비 급등 등 복잡 변수를 안고 있다. AI가 창출한 부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거시 지표와 다수 가계가 체감하는 현실의 간극에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얼마나 넓게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장은 계속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제를 호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열린광장

햇살을 온 누리에

정 찬 열
시인·수필가

새해가 시작됐다,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도 한다. 일 년짜리 계획도 있고 여러 해에 걸친 플랜도 있다. 생각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같은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하기도 한다.

내 사무실 벽에는 '햇살을 온 누리에'라는 작은 나무판 위에 쓴 글이 걸려있다. 그 글이 걸리게 된 사연은 옛날 옛날로 거슬러 오른다. 반백 년 전쯤의 얘기다. 중학 졸업 후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고 농사를 지었다. 현실은 막막했지만 열여섯 푸르디푸른 계절. 나는 평생 좌우명 삼아 살아갈 등대를 찾고 있었다.

호롱불 밝히며 살던 그 시절, 해가 지면 세상은 깜깜했다. 칠흑 같은 방에 등잔을 켜면 어둠이 저만치 물러났다. 등잔 하나가 밝혀주는 세상이 좁지 않았다. 이 작고 외진 시골 마을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트면 들에 나가 풀 베고 해 지면 지게 지고 돌아오는 농사꾼으로 사는 동안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어둠을 물리치는 등잔불 하나. 누리를 밝히고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며 곡식을 여무는 햇살 한 줌.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귀하디 귀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몸을 이루었다. 햇살처럼 고마운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햇살을 온 누리에'라는 말이 내 평생의 좌표가 되었다.

그 몇 년 뒤, 해남 대흥사 입구에서 불에 달군 인두로 나무판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주는 분을 만났다. 그분께 부탁하여 저 나무판을 만들었다. 작은 글씨로 당시 날짜 -단기 사천 삼백 십 년 '정월 초하루'-가 표기되어 있다. 서기로 치면 1967년. 솔담배 한 값에 500원 하던 시절, 그 정도 값을 치렀던 성싶다.

이사할 때마다 나무판을 모셔가 책상 앞에 걸어놓았다. 미국까지 가져왔다. 마음속 깊이 넣어둔 저 말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삶의 고비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기준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해야 할 때 그 일이 가져올 손익보다는, 내 주변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일인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저 글은 이를테면 내생의 돛단배를 조정하는 키다. 2014년, 아내는 물론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결국 혼자 3주간 북한을 방문했던 이유도 저 말 속에 담겨있다.

벽에 걸린 빛바랜 나무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다. 매일 저 글을 보면서 묻는다. 오늘도 저 말씀에 합당한 하루를 살았는가. 온 누리는커녕 내 발밑이나 제대로 밝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일, 한 달, 일 년을 지나면서도 같은 질문을 한다.

개가 달려가면 매화꽃 떨어지고(拘走梅花落), 닭이 걸어가니 댓잎 돋아난다(鷄行竹葉生)고 했다.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겼을까. 그리고 어떤 무늬를 남길 수 있을까, 늘 궁금하다.

AI와 함께 진화하는 전쟁…유·무인 복합 무기가 답이다

최윤희의 퍼스펙티브

전 합참의장·해양연맹총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12월 3억원 안팎의 수중 드론으로 6000억원가량의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이 흑해 노보로시크에서 러시아 함정을 공격해 폭발하는 모습. [사진 우크라이나 보안국]

새해 벽두부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20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미국은 반정부 시위가 한창인 이란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음 달이면 4년을 맞이하고, 미국은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속성이 더욱 심화했다는 점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도 우방도 동맹도 없는 시대다. 둘째, 독립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체 방위 능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각자도생을 위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셋째, 분쟁 과정에서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의 등장으로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드론과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장 투입은 전장에서 군사적 효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비용과 병력 절감 차원에서 유인 체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광역 정찰, 감시 및 통신 능력과 군집 운용(Swarming)에 있어 이런 첨단 무기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개발한 드론으로 인구 3.5배, 군사력 5배 이상인 러시아의 침공을 4년째 버티고 있다. 요인 암살에 동원된 무인 체계의 은밀성과 정밀성은 한국의 전력 증강이 어느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바다와 공중으로 확대된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을 목격한 북한은 핵 집착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6자 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 문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핵 위협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면역확대' 전략으로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에 나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핵 추진과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략 잠수함(SSBN) 보유 시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SSBN은 단순히 핵 선제 타격을 넘어 유사시 미국이나 한국의 반격, 즉 1차 타격에도 생존해 2차 핵 공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다. 북한이 SSBN을 앞세워 해양 통제권 확보에 나설 경우 대응이 마땅치 않다.

북한은 여전히 6·25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당시 해군력과 공군력이 사실상 붕괴돼 연합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교훈으로 바닷길이 막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현재 국방력 강화에 대입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SSBN·5000t급 구축함 건조 현장을 보여준 것은 그런 의미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 공격 드론인 MQ-9 리퍼(Reaper)와 흡사한 새별-9과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본뜬 새별-4형, 북한판 타우러스(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를 공개한 것도 가성비와 활용 가치를 앞세운 공군력 강화 차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5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해 드론의 위력을 현장에서 체득한 북한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한 드론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2012년 이후 수시로 한국에 무인기를 보냈듯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다양한 도발에 사용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오랜 기간 경제난을 겪고 있어 무기 증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

군사력 강화도 가성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국의 국방비를 200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65조8642억원이다. 이는 GDP의 2.42% 수준이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린다면 약 30조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그동안 예산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국방력 건설과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할 문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면서도 전력을 증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성비 높은 방안을 채택하면서도 현실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당면한 최대 위협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확장 억제 전략은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대비 능력이 충분한지 실효성 검증이 어렵다. 우리의 대비 수준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대안은 유·무인 복합 대응 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미래전 대비다. 유인 체계를 가성비가 높은 무인체계로 대체하고, 무인체계의 단점을 사람이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미 개발된 기술력으로도 지상·공중·해상을 망라해 적용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병력 부족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유사시 상대의 주요 인사를 핀셋 공격하는 특수 작전도 과거처럼 특수 부대원이 직접 나서는 시대는 지났다.

이스라엘 사례에서 보듯 참수 작전 역시 무인기를 적극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선진국인 한국의 장점을 극대화한 한국형 무인 전력 체계 개발과 배치가 시급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는 자기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북한 지휘부를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인 체계를 구축한다면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공격력과 더불어 방패의 논리로 안티 드론(Counter UAS) 체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탐지에서 무력화까지 다양한 장비와 기법을 개발 중이지만 소형 드론을 발견하고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 한반도처럼 산악이 많거나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더욱 그렇다. 필자는 합참의장 시절 북한 무인기 청와대 침투 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나 미국의 '골든 돔'도 수천 개의 군집 드론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무인기 방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바다, 급한 불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체면을 구기면서도 한국 등에 손을 내민 게 조선 협력이다. 중국 국방비의 3배 이상을 투입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해군에 대한 투자를 줄였던 탓도 있지만 해양으로 나가려는 중국의 부상과 해양 작전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해양이 뚫리면 육지는 사면초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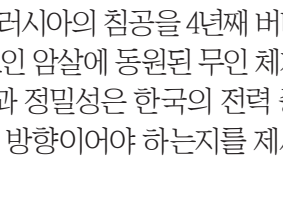
70여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숫자만으로는 세계 최대 잠수함 보유국이다.

여기에 전략잠수함까지 확보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켜, 서해의 수심이 얕아 잠수함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전제를 무너뜨렸다. 또 동해는 잠수함이 작전하기에 천국이다. 이는 대잠전, 즉 방어하는 입장에선 최악의 환경이라는 얘기다. 동해에는 상시 쿠루시오 난류와 리만 한류가 마주치며 대규모의 와류를 형성한다. 이 와류는 그 자체로 잠수함과 같은 형태의 표적을 형성하며 음파의 진행을 왜곡시킨다. 잠수함이 이 특성을 이용해 은폐를 시도하면 탐지할 수단이 없다.

미 해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부정적이다. 일례로 10여 척의 첨단 전력이 항공모함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연합훈련에서 적 잠수함 역할을 한 우리 잠수함이 매번 방어망을 뚫었을 정도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전력만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노력과 별개로 수중 드론과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이 시급하다.

과거 혈맹이나, 동맹 시대를 의심케 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는 안갯속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전장에서 무인의 시대는 이미 눈앞에 와 있다.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 ·챕터 11 ·파산법원의 각종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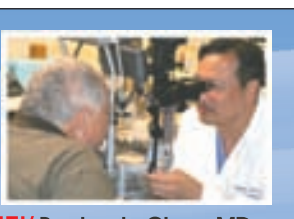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사설

'12·3 계엄은 내란' … 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어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주는 의미는 한 총리에게 내려진 양형의 무게만큼이나 중대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다. 이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12·3 계엄에 대해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의미가 무겁게 다가온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12·3 계엄을 폭동을 동반한 친위 쿠데타로 단죄한 점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주도 세력과 옹호 세력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12·3 계엄은 내란"이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행정부의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12·3 계엄 선포 전후에 보인 행동에 대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해명이나 동정론으로 통하지 않을 만큼 한 전 총리가 한 행위의 무게가 엄중하다는 의미다.

공직 생활 50여 년 동안 총리를 두 번 지냈고,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인물이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헌정사의 비극이다. 한 전 총리의 실패와 불행은 단지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모든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가짐,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이 돼야 한다.

다음 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별도의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긴 하지만, 12·3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내란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법원에 맡기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정한 내란 극복을 위한 통합과 재건의 새 출발에 나서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지켜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사회적 갈등 조장 멈추고 통합과 재건 나서야

12·3 계엄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현 야당은 이번 판결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여당도 정치 보복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대승적으로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 어렵게 회복한 민주주의가 분열과 갈등으로 또다시 벽에 부닥치지 않고 통합과 재건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 … 문제는 실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념과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실용 노선을 거듭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등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두는 등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용적 입장을 피력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 등 최근 부각된 쟁점들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논란을 정리해 줬다.

문제는 이런 실용주의를 담보할 실천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의 많은 답변 가운데 몇 가지 부분은 지적할 부분이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영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인선 강행을 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청문회를 소집할 기회를 준 것은 다행이나, 대통령 스스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고 말한 이상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할 게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문제점이 없는지 시스템을 다시 되짚어 보겠다는 다짐을 했어야 옳았다.

이 대통령이 다시 밝힌 북핵 문제 해법에도 의문이 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기다리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며 개발 중단에 이은 군축 협상을 거론했다.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중간 단계로서의 군축 협상 구상을 밝혔지만, 자칫 군축 협상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시발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는 것과 실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용과 현실을 강조하다 북핵 인정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의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 이 대통령은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보다는 한결 유연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여당 내부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개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통합에 진심이라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개별 정당과 대통령이 직거래하면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며 거리를 둘 이유도 없을 것이다.

2006년과 2026년, 선거 평행이론

채병건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2006년 지방선거까지 떠오른다. 여의도에선 탄핵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뒤 치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게인 2018'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당시가 밑바닥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그 바닥을 뚫고 더 추락할 수도 있다. 2006년이 그랬다. 그해 5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전북 1곳만 차지하며 전북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집권당 1곳만 승리'는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이다. 더 심각했던 건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의 해체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5개월 후인 올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민심이 2006년과 닮은꼴이다. 그해 참여정부와 여당의 리더십은 사실상 무너졌다. 탄핵 위기를 역전의 계기로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집권 여당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꺼내들기 어려운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내걸고 질주했다. 무엇보다 2005년 참여정부가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 호남의 전통적 지지층과 지역정당 해체를 내건 열린우리당 신주류도 갈라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는 열린우리당과 다른 길을 걷던 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내 당선시켰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무너지면서 '리더십 해체'보다 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지층 균열도 심각하다. 한때 범보수였던 외곽 지지층은 일찌감치 이탈했고, 코어 지지층까지 친윤과 반윤으로 분열돼 있다. 그러나 이를 수습할 구심점은 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의 당권파는 분노의 대상을 당내에서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보다는 사과와 반박에 정교하게 선을 긋는 미시적 리포트 작성 능력만을 보여줄 뿐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지지층이 결집해 주겠거니 국민의힘이 기대하면 오산이다. 그런 모호한 희망에 기댔다가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게 2006년의 사례다. 그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설마설마했지만 개표함을 열어 보니 민심은 잔인할 정도로 집권 여당을 심판했다. 230개 기초단체장 중 열린우리당은 무소속(29곳)만도 못한 20곳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 25곳 구청장 전원을 한나라당이 석권했다.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싼 여건은 2006년,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 시간이 흐르며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층이던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했던 노령 유권자 수는 그때보다 줄었다. 장 대표가 단식으로 대여 결기를 보여줬지만, 국민의힘은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굴 밖에선 다들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여기는데 동굴 안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국민의힘을 떠나간 옛 외곽 지지층, 중도층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는 필패다. 선거는 이진법의 싸움이다. 49.9% 대 50.1%의 박빙 승부라도 그 결과는 0 아니면 1의 두 가지뿐이다. 무엇보다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의 외교안보 계절은 돌연 화창한 봄으로 바뀔 수 있다. 이재명 정부 희망대로 남·북·미 회동,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린 뒤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 하는가.

국민의힘, 8년 전 지방선거 패배
그보다 더한 2006년 현 여권 참패
안 바뀌면 20년만의 평행이론 출현

2006년 선거 참패 후 열린우리당은 당명을 바꿀 여유조차 없었다. 100년 정당을 꿈꿨던 열린우리당은 다음 해 공중분해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이벤트로 변화를 보여주겠다는데 이름이 바뀐다고 당이 회생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생존 여부가 갈릴 수 있다. 6월 3일 개표 직후 카메라가 텅텅 빈 국민의힘 상황실을 비추게 된다면 진짜 치명적이다.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2006년의 선거 결과가 여야 간 배역이 바뀐 채로 2026년에 재현되는 20년 만의 평행이론이 증명될 수 있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www.hyebanmd.com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오전 11시 ~ 오후 10시
수요일	정기 휴무 / CLOSED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KOREAN BBQ HYEBAN 혜반

☎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AN. 22ND - JAN. 29TH, 2026

SWIMMING CRAB MARINATED IN SOY SAUCE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4.4 LB/PKG **LIMIT 3**

$18.99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 40 years Since 1982 · H MART

3 LB MORE! 15 LB + 3 L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마이 쌀

~~Reg. $17.99~~ **LIMIT 2**

$11.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타주 이주 원인 1위 가족·싼 주거비

전통적 1위인 일자리 앞서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 선호
오리건 사상 첫 유입 1위로

타주로 이주하는 가장 큰 동인이 직장 이동이나 일자리에서 가족으로 바뀌었다.

타주로 이주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기회에서 가족과 싼 주거비로 바뀌고 있다. 이사·물류서비스회사 '유나이티드밴 라인스'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 연례 전국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9%는 가족을 이주 이유로 꼽았다. 전통적으로 강한 큰 이주 원인이었던 직장 이동이나 일자리는 26%로 밀렸다. 은퇴는 약 14%였다.

생활방식 변화는 2021년과 2022년 약 17%였으나 이번엔 약 10%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생활비도 이주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 2022년 8%였으나 3%로 떨어졌다.

지난해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이주가 줄어든 가운데 대도시보다 주거비가 저렴한 작은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된다는 점이었다.

주의 경계를 넘는 국내 이주는 팬데믹 시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하버드대학교 공동주택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인구 1000명당 14.2명이 국내에서 이주했으나 2024년에는 2.8명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대도시보다 주거비가 싼 작은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가족과 가까운 작은 도시의 저렴한 주택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는 보고서에서 "소규모 도시와 타운으로의 광범위한 이동이 미국인의 이주 패턴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 유입 상위 7개 주

순위	주
1	오리건
2	웨스트버지니아
3	사우스캐롤라이나
4	델라웨어
5	미네소타
6	아이다호
7	노스캐롤라이나

이주 유출 상위 7개 주

순위	주
1	뉴저지
2	뉴욕
3	캘리포니아
4	노스다코타
5	콜로라도
6	미시시피
7	매사추세츠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오리건주가 사상 처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주 목적지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유입 비율은 65%로 전국 1위였고 유출 비율은 35.5%였다. 인접한 아이다호도 유입 비율 57.8%, 유출 비율 42.2%로 유입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접한 가주가 유출 인구가 많은 점과 팬데믹 이후 몇 년간 대규모 인구가 유입했던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현재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바뀐 것과 대조를 이룬다.

동부도 상황이 비슷했다. 고용이 많지만 생활비가 비싼 뉴욕도 가주와 마찬가지로 유입 42.2%, 유출 57.8%를 기록하며 순유출 상태에 머물렀다. 인근 뉴저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출 비율인 6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들 주가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젊은 가정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과 생활방식에서 은퇴자들은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별 데이터에서도 저렴하고 규모가 작은 도시가 가장 많은 주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주 유진-스프링필드는 유입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은 83%, 델라웨어주 도버는 79%를 기록했다.

반대로 대도시권 기준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으로 88%에 달했다. 이어 뉴욕주 나소-서퍽 지역이 78%, 콜로라도주 푸에블로가 74%를 기록했다.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의 아일리 커밍스 기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데이터는 미국인들이 전혀 다른 삶의 속도를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오리건과 캐롤라이나 지역, 남부를 꼽았다.

커밍스 부사장은 이와 함께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유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연령대별 이주 패턴도 점점 더 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뉴욕시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뉴저지를 선호하고 은퇴자들은 뉴저지를 떠나는 경향이 강했다.

스톨 교수는 "전반적으로 인구 이동이 북부와 중서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으며 상위 유입 지역이 중소 규모의 도시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덜 빡빡한 생활을 선호했던 코로나 시기 유산과 함께, 주택 비용이 여전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들이 올해도 국내 이동 인구의 상당 부분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703)303-0988
f.(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중매 결혼식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350 (교재비: $100)
시작이 좋습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 $650,000
• 공사비(후불) : $45,000
• 수리 후 가격 :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버지니아
1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끝집,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메릴랜드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DC
2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3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4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스타벅스 끊어야 내 집 마련 가능"

Z세대 불필요한 소비 경고
FHA로 3.5% 다운페이 가능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

부동산 기업 코코란 그룹 파멜라 리브먼 최고경영자(CEO)가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를 향해 던진 일침이다.

리브먼은 최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시지 말라.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라"며 "그렇게 모은 작은 돈이 얼마나 빨리 큰 종잣돈이 되는지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주택 다운페이먼트 규모는 약 3만400달러로 집계됐다.

리브먼은 Z세대가 내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집값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매일 커피를 사고, 우버를 타고, 밖에서 식사하고, 친구들과 주 3회씩 술자리를 가지면 돈이 금세 빠져나간다"며 "지하철은 우버보다 훨씬 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완벽한 지역에 집을 찾으려 스트레스받기보다 일단 시작하라"며 "지금은 작은 집이라도 사두고, 꾸준히 저축해 더 나은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했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약 6% 수준으로, 금리 안정세에 따라 일부 대기 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리얼터닷컴 경제분석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물은 100만 채를 넘어섰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남부·서부 지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공급이 늘고 있다.

반면 동북부와 중서부는 여전히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나 존스는 "하루 10달러를 절약하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룸메이트와 함께 살거나 가족과 잠시 지내는 등 주거비를 줄이거나, 더 높은 소득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전국 50대 대도시의 중간 임대료는 월 1703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의 부동산 중개인 제시카 밴스는 "돈을 잘 관리하고 장기 목표(다운페이먼트)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주택 중간 매매가가 42만 5000 달러 수준이지만, 30만 달러 이하의 '입문형 주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스프링필드의 28만 5000달러대 케이프코드 스타일 주택 ▶캔턴의 30만 달러 이하 신축 단독주택 ▶밀워키의 26만 달러대 2베드룸 주택 등이 꼽힌다.

밴스는 또 "FHA 대출을 이용하면 최소 3.5%의 계약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며 "저렴한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Z세대의 가장 빠른 내 집 마련 경로"라고 조언했다.

물론 스타벅스 한 잔을 끊는다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리브먼은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고,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부의 첫걸음이다. 젊은 세대가 '소소한 낭비'를 줄이는 순간, 내 집 마련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가주 88% 지역서 집값 하락

지난해 가주 내 메트로 지역 중 88%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의 12월 통계에 따르면, 가주 16개 주요 대도시권 중 14곳(88%)에서 주택가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다만 하락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LA·오렌지카운티 지역은 1년 전 대비 1% 하락했다. 반대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 상승, 그보다 전인 2020~2023년에는 4년간 가격이 39%나 상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큰 폭은 아니지만, 가격 부담이 높았던 주택시장에 작은 완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락 국면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불과 얼마 전까지 가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시장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가주에서는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이 하락한 메트로가 단 한 곳도 없는 14개월 연속 전 지역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른 남가주 지역을 보면, 인랜드 지역은 지난달 집값이 전년 대비 2% 떨어졌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 이전 4년간은 49%나 올랐다. 가주 전체로 봤을 때도 지난해 말 집값이 2% 하락했다.

우훈식 기자

연 6만~18만불 벌어야 중산층

기준 또 상승…전국 최상위권
높은 주거비·생활비 부담 탓
샌호세·어바인 등 지역차 커
고소득형 중산층 빈곤 확산

가주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위한 소득 기준이 2026년에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타주라면 상위 소득층에 해당할 연봉도 가주에서는 중산층 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퓨리서치센터의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역별 중위 가구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를 버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를 가주에 적용하면, 2026년 기준 중위 가구소득 약 9만1905달러를 바탕으로 중산층 소득 범위는 연 6만1269달러에서 18만3810달러로 추산된다. 이보다 낮으면 저소득층, 이를 넘으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는 전국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메릴랜드·뉴저지·매사추세츠 등 소수 주만이 가주와 비슷한 중산층 기준선을 보인다.

가주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극명하다.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호세의 중산층 소득 범위는 9만810달러~27만2458달러, 샌프란시스코는 8만4478달러~25만3460달러,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은 8만5317달러~25만5978달러로 집계됐다. IT·금융·전문직 고소득 일자리가 몰린 해안 도시일수록 기준선이 크게 뛰는 구조다.

투명성재단이 최근 공개한 '가주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3만 달러를 버는 3인 가구는 전국 평균 대비 연간 2만9753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의료비, 보육비, 세금 등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돈 결과다.

가주 전체 생활비는 전국 평균보다 약 40% 높고, 특히 주거비는 124%나 비싸다. 전기·수도 등 공과금은 34%, 식료품은 14% 더 비싸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체감의 핵심 변수로 주거비를 꼽는다. 과거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기존 주택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최근 주택 구입자나 임차인은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연소득 15만 달러를 벌어도 주거비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가주 정부의 중산층 장학금 프로그램은 2026~27학년도 기준 소득 상한선을 25만 달러로 설정했다. 고소득으로 보이는 가구도 교육비 부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전체 중산층 비중은 1971년 61%에서 2024년 약 51%로 감소했다. 초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공존하는 반면 전통적 중산층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주에서 중산층이란 단순한 소득 구간이 아니라, 주거 지역·가구 규모·주택 보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라며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저축 없이 월급에 의존하는 '고소득형 중산층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주택 다운페이, 401(k) 활용 추진

〈은퇴연금 계좌〉

해싯 NEC 위원장, 방안 검토
구매 유동성 제약 문제 해소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핵심 경제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가 은퇴연금 플랜인 401(k)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월 페이먼트가 거의 두 배로 늘었고, 다운페이먼트도 약 1만5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며 "이 격차를 메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여러 정책 수단을 논의 중이며, 대통령이 이번 주 다보스에서 최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택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입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액을 줄여 주택 소유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01(k) 자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할 경우 은퇴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의 10%를 다운페이로 내고, 해당 주택의 지분 10%를 401(k)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라면, 집값 상승과 함께 401(k)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은 젊은 시절 주택 구매를 가로막는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면서도 은퇴 자산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도상 401(k) 계좌에서 첫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59세 반 이전에는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은퇴계좌(IRA)에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401(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달라고 연락 옴.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NEW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차고 1 타운 홈, 경쟁률 뚫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세틀먼트 예정 NEW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팜.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틀먼트 완료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퍼 받아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틀먼트 완료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사자마자 주재원 장기 렌트 완료 10/21 세틀먼트 완료 NEW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소		기간	세입자
올 겨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NEW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타운 홈, 방 3, 화 3+1, 카펫 없음, 룽펠로우 중/맥클린 고등
McLean, One Park Crest 콘도	NEW	바로 입주 가능	$4,000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NEW	바로 입주 가능	$2,700 방 2, 화 2, 지정 차고, Springhill ES, Longfellow MS, McLean HS
Centreville, VA	NEW	12/20 입주 가능	$3,2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타운 홈, 콜린 파월 초등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NEW	12월 말 입주 가능	$4,800 맥클린에서 유일하게 수영장 있는 차고 1, 타운 홈, 방 4, 화 3+1, 룽펠로우 중/맥클린 고등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NEW	1/1일 입주가능	$3,3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싱글 홈, 교통편리, 방4, 화2, Nice Owner
Vienna 타이슨스 옆 Amberwood타운 하우스 단지 3채	NEW	한 채는12/20일, 두 채는 1/1일 입주 가능	$4,600~$4,800 차고 2 타운홈,Greensboro 역, Westbriar 초등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집 상태 아주 좋음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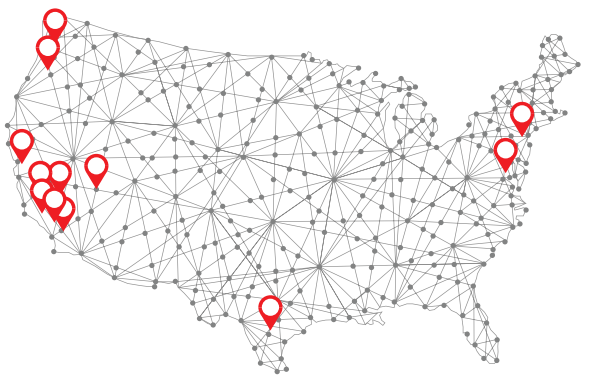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선택 잘 했어도 주기적인 점검·변경 필수

달라진 은퇴 소득 설계

특정 플랜과 인출 방식을 10년 전에 잘 정했다면 이제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의 '축적(Accumulation)'보다 '인출(Distribution)'의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많은 가입자가 선택했던 수단이 바로 개인연금, 그중에서도 다양한 보장 혜택(Rider)이 부가된 변액 및 지수형 연금이다. 하지만 10년, 20년 전 가입한 상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과연 현재의 경제 환경과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상속 계획에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의 주류였던 GMIB와 최근의 대세인 GLWB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은퇴 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롤업(Roll-up)의 메커니즘

연금 상품 구조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현금 가치(Account Value)'와 '인컴 베이스(Income Base)'의 이원화된 구조다. 현금 가치는 실제 시장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며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돈인 반면, 인컴 베이스는 향후 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상의 수치다.

이 인컴 베이스를 일정 비율로 확정 증식시켜 주는 기능을 '롤업(Roll-up)'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 9% 롤업 조건이라면, 시장이 하락해도 인컴 베이스는 매년 9%씩 늘어난다. 복리일 수도 있고 단리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는 가입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하락장에서도 미래의 소득 수준을 보장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롤업에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의 상품들은 대개 가입 후 10년에서 15년 사이, 혹은 인컴 인출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롤업을 적용한다. 많은 가입자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이 롤업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래 두면 좋다'는 생각에

인출 시점을 미루는 것이다. 엔진이 멈춘 자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롤업 종료 시점은 곧 해당 상품의 전략적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어야 한다

> **롤업(Roll-up)의 원리와 활용 기간 이해 필요**
> **구형 GMIB 특성과 연금화 수령 시기 숙지도**
> **GLWB로 평생 소득 보장, 자산 소유권 유지**
> **자산 효율성 극대화, 최신 옵션 전환 검토 해야**

▶GMIB(보장 최소 연금 혜택)의 원리

과거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GMIB(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는 경쟁력있는 롤업 이율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이 혜택을 쓴다는 것은 '연금화(Annuitization)'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화란 그때까지 쌓아온 인컴 베이스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대신 평생 일정액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험사에 이전하게 된다.

연금화는 하지만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금화가 시작되면 큰 목돈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원금을 찾아 쓸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원금은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연금화해서 쓰는 GMIB는 '장수 리스크' 방어에는 탁월할지 모르나 자산의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대적인 은퇴 설계와 거리가 있다.

그래서 GMIB는 연금화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은퇴후 인출을 원할 경우 GMIB 롤업만큼만 인출하며 최소한 그동안 쌓아온 인컴베이스를 유지하며 가는 것이다. 계좌 잔액이 소진될 즈음 비로소 연금화로 돌려서 계속 혜택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받는 금액은 기존의 롤업 퍼센트만큼의 금액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GLWB(보장 평생 인출 혜택)와 자산 통제권

이러한 GMIB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이다. GLWB의 핵심은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평생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 있다.

GLWB 구조에서는 연금화(Annuitization)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대신 인컴 베이스의 일정 비율(예: 연 6%)을 평생 뽑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하다. 굳이 연금화 시기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예상 가능한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다. 연금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잔여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유동성 확보다. 물론 과도한 인출은 향후 보장되는 인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어카운트 밸류(현금 가치) 소진 시점

많은 은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계좌의 현금 가치가 '0'이 되는 시점이다. 구형 GMIB 가입자들은 이 시점에 도달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화 옵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효과적 GMIB 활용법의 마지막 선택지와 동일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리뷰가 필요한 '전략적 틈새'가 발생한다.

최신 상품을 통해 보다 나은 연금 수령 금액이나 옵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시점에 인컴 베이스를 즉시 20%~30% 이상 증액해주는 '보너스'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것만으로 혜택이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인컴 지급률(Payout Rate) 자체가 좋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신상품들이 지급률 면에서 구형 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적어도 케이스별 검토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은퇴 자산 '정기검진' 필요

결론적으로 은퇴 소득 플랜은 한 번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대상이 아니다. 시장의 이자율 변화, 보험사의 상품 경쟁, 그리고 개인의 자산 구조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하는 생물과도 같다.

특히 가입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롤업 혜택이 곧 종료되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현금 가치는 낮아졌으나 인컴 베이스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평생 소득은 필요하지만 자녀에게 남겨줄 상속 자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 GMIB 상품의 복잡한 연금화 조건이 부담스러운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검토를 권장한다. 과거의 선택이 당시에는 최선이었을지라도 현재의 금융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유연해졌다.

낡은 규정에 얽매여 소중한 은퇴 자산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자. 효율적인 인컴 설계는 단순히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565,000 방3 / 화3.5 / 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 화1+ 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PENDING $200,000 방1 / 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빵빵)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연방항소법원이 교회는 신념을 공유하는 신자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의 예배 모습.

개신교 교회 감소 뚜렷이 진정돼

2024년 200곳에 그쳐
5년 전엔 1500곳 감소
94% "10년 뒤에도 존속"

개신교 교회 수는 여전히 감소세이지만 감소 폭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1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개신교 교회 약 3800개가 문을 열었고 약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번 분석은 전체 개신교 교회의 약 58%에 해당하는 35개 교단이 제공한 교회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 대표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평균 출석 인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교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기준 교회 개척과 폐쇄의 차이는 약 200개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개척 교회가 3000곳, 폐쇄 교회가 4500곳으로 문을 닫은 교회가 1500곳이나 더 많았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개척 교회 4000곳, 폐쇄 교회 3700곳으로 300곳이 늘었다.

교계에서 개척 교회 증가는 중요하다.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교 에드 스테처 학장은 "교회 개척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성장의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스테처 학장은 "교회 개척이 없다면 성장하는 교단도 결국 쇠퇴하게 되고 이미 줄어드는 교단은 더 빠르게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종교 센서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개신교 교회는 약 29만 3000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4000개 교회 폐쇄는 전체 개신교 교회의 약 1.3~1.4%에 해당한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에 대한 별도 분석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3~2024년 남침례교 교회의 1.4%가 해산하거나 폐쇄했다. 0.4%는 교단을 탈퇴하거나 제휴를 중단했다.

남침례교 교회 수는 2017년에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2024년 715곳 폐쇄는 감소세가 시작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손실이다.

맥코넬 대표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교회 폐쇄라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교회는 20년 전보다 출석 인원이 줄고 이전보다 취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새로 세운 교회는 번성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교회는 폐쇄 교회를 보완할 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남침례교 내부에서는 지난 5년간 순회원이 증가한 곳은 최근 25년 이내에 설립된 교회뿐이었다. 2000년 이후 설립된 교회는 신자가 12% 증가했다.

반면, 1950~1999년 설립 교회는 11%, 1900~1949년 설립 교회는 13%, 1900년 이전 설립 교회는 11%나 신자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물었다. 개신교 목회자의 94%는 자신의 교회가 10년 뒤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4%는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10년 뒤 존속에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78%였다.

출석 교인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은 불안을 가장 컸다. 이들 가운데 10년 뒤에도 교회가 존속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8%로 가장 낮았고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로 가장 높았다.

맥코넬 대표는 "전형적인 미국 교회는 언제나 소규모"라고 전제하고 "교인들의 고령화와 생활비 상승으로 같은 출석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과거보다 재정적인 여력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회 개척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 교회의 36%가 교회 개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2%는 개척자 훈련을 도왔으며 38%는 코칭에 참여했다. 30%는 개척 평가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새 교회의 주 후원자로 직접 재정 책임을 맡은 교회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남성들, 문명화 과정서 욕망 승화 압박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프로이트 욕동이론과 문명화

여성은 문명의 요구 아래
뒷전 밀리며 적대적 태도
신경증으로 이어졌다 주장

프로이트에 따르면 여성들은 애초에 일보다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문명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들은 '문명화과정'과 갈등하게 되고, 가족과 성적인 삶을 지지하면서, 문명을 지연시키고 제약하는 힘을 발휘한다.

반면에 '문명화과정'은 점차 남성들의 일이 되며, '욕망의 승화'라는 힘든 일을 강제당한다. 이 일은 여성들에게 호응되는 일이 아니므로 반발하게 되고, 남성은 갈등하게 된다고 한다. 가령, 일본 영화 '욕동'에서 아내인 유리가 남편인 치히로의 마초(macho)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그 자릴 대신하는 다른 남성에게 끌린 것은 이러한 여성 심리상태의 발현이란 점에서, 인간의 불륜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영화에서 불륜을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이유도 이러한 여성의 심리상태를 읽고, 나름 예술로 승화시킨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남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리비도'를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달성해야 하는 리비도의 경제 선택의 정점에 선다고 한다. 그는 문명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및 성적인 삶으로부터 매우 큰 거리를 둔다고 한다. 가령, 타인들과의 업무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문명의 요구로 인해 자신이 뒷전으로 물러앉는다는 점을 알게 되므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성생활의 좌절은 '신경증'으로 이어지고 신경증 환자들은 대리만족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은 일시적이고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고통의 원인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즉, 문명 발달의 어려움을 '리비도의 관성', 즉 이전의 위치를 새로운 것에 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프로이트는 '욕동 이론'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실러의 "굶주림과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에서 단서를 찾았다고 한다. '굶주림'은 개체를 보존하는 여러 '욕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 '사랑'은 대상을 추구한다. 완전히 굶주리는 것보다 불완전하게 굶주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 아주 적은 음식이라도 뇌는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하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든다고 한다. 즉, 거식증에 걸린다는 것이다. '사랑'의 주된 기능은 종(種)의 보존이다. 초기에 프로이트는 '자아 욕동'과 '대상 욕동'을 대립시켰다. 즉, '대상 욕동'에만 리비도 개념을 도입해서 사랑의 리비도적 욕동과 자아 욕동을 구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르시시즘'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아 그 자체에 리비도가 투입되고 있고, 실제로 자아가 리비도의 고향이며, 이 자기애적 리비도는 대상을 향하면 '대상리비도'가 되기도 하고, 그 방향을 바꾸면 자기애적 리비도로 또다시 변화된다고 한다. 즉, 리비도가 이성을 향한 에로스적 리비도만이 아니라 자기애적 리비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칼 융이 주장했던 "리비도가 성욕뿐만 아니라 욕동 에너지 전체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프로이트가 받아들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생명체를 보존하고 그것을 더 큰 단위로 결합하는 욕동과 더불어 그 힘에 맞서 이 개체들을 붕괴시켜 태초의 비유기체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즉, '에로스'와 더불어 '죽음의 욕동'이 존재하며, 이 둘의 상호작용과 반작용이 삶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후자의 욕동은 그 일부가 '외부 세계'를 향하고, 이후에 공격과 파괴를 자행하는 '욕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죽음 욕동'은 유기체가 그 자신이 아닌 여타 생물과 무생물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에로스'를 위해 봉사한다고 한다.

집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방에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집 이쁘게 수리하여 팔아드립니다.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매물

페어팩스 타운홈

2005년생, 방4, 화3.5, 차고 2,
집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850,000

매물

챈틸리 타운홈

2005년생, 방3, 화2.5, 차고 2,
3레벨 모두 범프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700,000

매물

센터빌 타운홈

1995년생, 방3+ 화3,5,
1250sqft

$530,000

매물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 2,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700,000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맴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팩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 유닛하우스 투자

대출 유리, 안전성 은퇴자에 유리
높은 가격에 법적 리스크도 존재

알렉스 신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2~4유닛 인컴 유닛 하우스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자산이다.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중간 성격을 가지며,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40~70대 한인들에게 익숙한 선택지다. 2026년을 바라보는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유닛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자.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2~4유닛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융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5유닛 이상)에 비해 대출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다. 본인이 한 유닛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유닛에서 렌트를 받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에게는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현실적인 선택이다. 특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임대 수요가 꾸준해 공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하나의 장점은 관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유닛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관리가 가능하고, 풀 매니지먼트 회사를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6~8% 매니지먼트 비용을 부담 안 해도 되니 익스팬스를 줄일 수 있다. 오랜 기간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 온 한인 세대에게는 익숙한 구조다. 또한 단독주택 대비 토지가 넓은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증축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고, 향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가족 간 자산 이전을 고려할 때도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40~60대 한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복잡한 것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유닛 하우스를 선호한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부담은 가격이다. 2026년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2~4유닛 매물은 이미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금리가 과거 초저금리 시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신규 매입 시 현금 흐름이 빠듯해질 수 있다. 예전처럼 "사두면 렌트로 다 커버 된다"라는 공식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또한 규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렌트 컨트롤, 퇴거 규정 강화, 수리 및 유지 의무 증가는 소규모 유닛 하우스 오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닛 수가 적다고 해서 규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특히 장기 거주 세입자가 있는 경우, 수익성보다 법적, 정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노후 자산으로서의 한계도 있다. 유닛 하우스는 분명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이야기 | 피클 볼이 바꾼 부동산

가벼운 스포츠+외식 브랜드 결합
'머물게 하는' 복합 공간으로 성장

해리 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스포츠는 이제 공간의 가치를 재설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특정 스포츠의 인기가 단순한 여가 트렌드를 넘어 주거 공간과 상업용 부동산의 구조, 그리고 개발 전략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인데,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피클 볼(Pickle ball)이다.

한때 은퇴자들의 가벼운 운동 정도로 인식되던 피클 볼은 이제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소셜 스포츠로 성장하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공간 수요와 가치 기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신축 분양 중인 대형 단독주택 일부가 실내 피클볼장을 기본 설계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피클 볼이 고급 주택 시장에서 하나의 프리미엄 어메니티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남가주에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 흔하지만, 대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뒷마당에 피클 볼 코트를 갖춘 주택이 앞으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피클 볼 코트는 여유 공간을 포함해 약 1800스퀘어피트 정도면 설치가 가능해, 라 킨 타나 팜데저트, 랜초 미라지처럼 대지 사이즈가 큰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며, 무엇보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중심의 주거 문화와 이웃 간 커뮤니티 형성에 매우 적합한 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문을 닫은 대형 리 테일 매장과 쇼핑몰 공간들이 피클 볼을 중심으로 한 체험 형 시설로 전환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복합쇼핑센터 더 블록(The Bloc)에 위치했던 메이시스 공간은 약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실내 사회 형 스포츠 클럽인 'Ballers L.A.'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8개의 피클 볼과 레스토랑 등 결합한 복합 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남가주처럼 상가 임대료와 운영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 민간 시설 외에도 시에서 조성한 공원 내 전용 피클 볼 코트, YMCA, 멤버십 기반 컨트리클럽이나 테니스·피클 볼 복합 클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천장고가 높고 넓은 폐점 쇼핑몰 공간들이 피클 볼 클럽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과 체류를 중심으로 한 '머무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작은 규모의 외식과 결합한 피클 볼 비즈니스 모델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인 'Chicken N Pickle'은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실내 외 피클 볼 코트를 결합한 컨셉트로, 라스베이거스 인근에서도 성업 중이다.

피클 볼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김성재의 **마켓 나우**

이란의 교훈, 워싱턴 없는 경제는 없었다

1978년 9월 8일, 테헤란 잘레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팔레비 국왕의 강압 통치와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군이 발포해 수백 명이 숨졌다.

국영석유회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석유 생산이 80% 넘게 급감했고, 정부는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세계 원유 생산의 10%를 차지하던 이란의 공급이 끊기자 국제유가는 세 배로 뛰었다. 이듬해 초 국왕은 망명했고 호메이니가 귀국해 최고지도자로 추대되었다. 군주국가 이란은 신정국가로 탈바꿈했다. 그해 가을 미국이 국왕의 망명을 허용하자, 격앙된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다.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1981년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지루한 협상 이후에야 444일간 억류된 인질 석방에 합의할 수 있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이란이 해외에 예치한 100억여 달러 규모의 자산 동결을 해제했다.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이란 젊은이들은 승리감에 도취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1984년 미국은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에 나섰다. 이란-이라크 전쟁과 경제 제재로 물가가 급등했고 생필품 부족이 심화했다.

1984년 10% 안팎이었던 인플레이션은 전쟁이 종료한 1988년 30% 부근까지 급등했다. 종전 후 물가는 한 자릿수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일시적이었다.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자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인플레이션은 50%로 악화됐고 리알화 가치가 급락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핵 합의(JCPOA)가 성사되면서 물가는 한 자릿수로 안정되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하여 '최대 압박'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은 다시 나빠졌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금융결제망까지 틀어막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원유 거래에 나서는 국가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중국 등을 포함한 '그림자 거래망' 차단 의지를 노골화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환율은 달러당 4만여 리알에서 100만 리알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물가는 급등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향해 치닫고 있다. 금리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연체율도 거침없이 상승해 금융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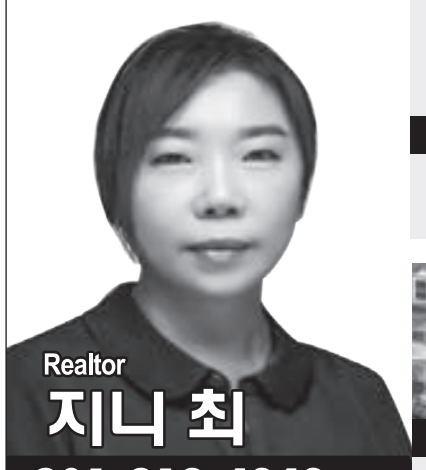
신정체제의 중핵인 혁명수비대의 부패도 상황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과거 이슬람 혁명에 나섰던 중장년층은 좌절했다.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생활고에 직면했던 이란은 큰 갈림길에 섰다. 이란의 사례는 명확한 교훈을 남긴다. 대미 관계 개선이 경제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관세 이야기』 저자

REALTY 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료 투데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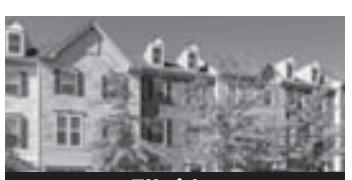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Ellicott City
$705,000

Silver Spring
싱글홈 화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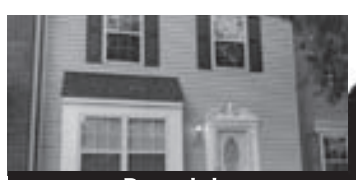
Laurel
$705,000
타운홈 방3, 화2.5

Glen Burnie
$582,000


Elkridge
$479,0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Ellicott City
$450,000
타운홈 방3, 화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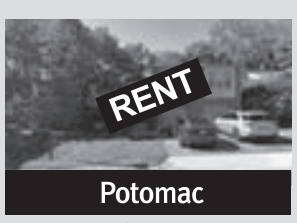
Hanover
$450,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Rosedale
$329,000
타운홈 방4, 화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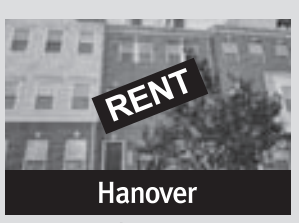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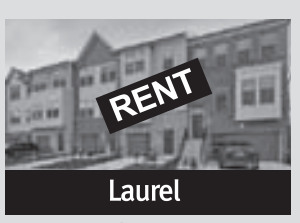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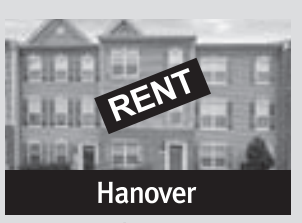
Potomac
월 $4,200
싱글홈 화5, 화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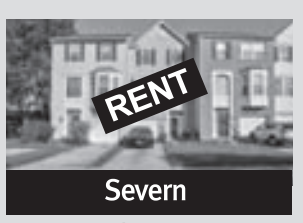
Hanover
월 $3,300
타운홈 방4, 화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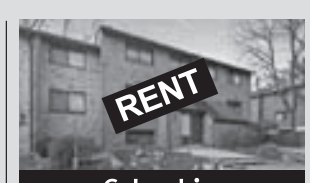
Laurel
월 $3,000
타운홈 방3, 화3.5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Severn
월 $2,700
타운홈 방3, 화2.5



Columbia
월 $2,600
타운홈 방4, 화3.5

JGL Construction Inc.
RESIDENTIAL & COMMERCIAL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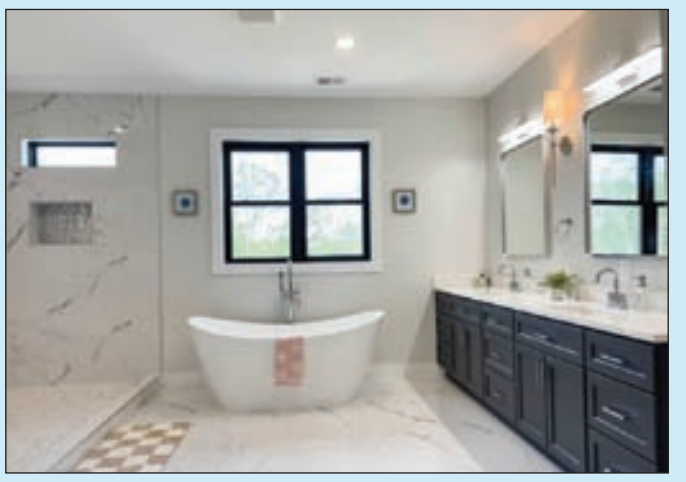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3세 이하 아시안컵 4강전에서 맞붙은 한국과 일본. [KFA 제공]

한국, 2살 어린 일본에 쩔쩔매다 졌다

U-23 아시안컵
전반 소극적 선제골 허용
후반전 압박, 결정력 부족

한국 축구가 '2살 어린' 일본에 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 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숙적 일본에 0-1로 무릎을 꿇었다. 전반 36분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에 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동점골을 뽑아내지 못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렸지만 4강에서 탈락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일본은 대회 2연패를 향해 진군했다.

앞서 이민성호는 조별리그를 1승1무1패로 가까스로 통과한 뒤 8강에서 호주를 꺾고 올라왔다. 올해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한국은 백가온(20·부산) 등이 뛰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23세 선수들이 주축이었다. 반면 2028년 LA 올림픽을 겨냥한 일본은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

평균 2살 정도가 많은데도 한국은 소극적인 4-5-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중원 블록을 두텁게 세우고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전반에 슈팅 수에서 한국은 1대10으로 크게 밀렸다. 전반 11분 일본 스루패스 한방에 수비진이 뚫리면서 미치와키 유타카에 위험천만한 골키퍼 일대일 상황을 내줬다.

한국은 내려서 역습을 노렸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가노 슈토의 헤딩슛을 골키퍼 홍성민이 몸을 던져 막아냈지만,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고이즈미 가이토(메이지대학)에 실점했다. 동점골이 필요했던 한국은 후반전이 시작하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했다. 후반 13분 장석환(수원 삼성)의 기습적인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했고, 4분 뒤 강성진(수원 삼성)의 왼발 발리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일본은 후반 21분 스리톱을 포함한 4명을 무더기로 교체했다. 혼혈 선수를 3명이나 투입했다. 후반 추가시간 김태원의 슛은 옆그물을 때렸다.

선수 시절 19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일본전에서 역전골을 터트렸던 이민성은 29년 만에 감독으로 일본을 상대했으나 '도쿄 대첩'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한국 성인대표팀은 일본에 고전 중인데, U-23 연령대도 일본을 상대로 2연승을 멈춰 섰다. 박린 기자

'킹' 르브론 제임스, 올스타 선발 제외

득표 9위, 22년 만에 처음
리저브 명단에 포함 기대

미국프로농구(NBA)의 '살아있는 전설' 르브론 제임스(41·LA 레이커스·사진)가 22년 만에 올스타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NBA는 19일 홈페이지로 2025-2026 시즌 올스타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다음 달 15일 LA 인근 잉글우드의 인튜이트 돔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표된 선발은 동·서부 콘퍼런스에서 5명씩, 총 10명이다. 팬(50%)과 선수(25%), 미디어 패널(25%) 투표 순위를 가중치에 따라 계산해 콘퍼런스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명씩 선정됐다.

눈에 띄는 것은 서부 콘퍼런스 선발에서 제임스의 이름이 빠진 것이다. 2003년 NBA에 데뷔한 제임스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연속으로 NBA 올스타 선발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2024년 NBA 사상 처음으로 20회 연속 올스타 선발로 선정되는 금자탑을 세웠고, 만 40세가 된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선발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팬과 선수 투표에서는 8위, 미디어 투표에서는 9위에 오르며 합계 점수 9위에 자리해 '베스트 5'에 들지 못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선발 선수 10명과 리저브 14명을 합해 총 24명의 선수가 2개의 '미국 팀', 1개의 '월드 팀'으로 나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그 감독들이 투표로 콘퍼런스별 7명을 뽑는 리저브 명단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제임스가 없는 서부 콘퍼런스 선발 명단에는 니콜라 요키치(덴버), 루카 돈치치(레이커스), 샤이 길저스알렉산더(오클라호마시티),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빅토르 웸반야마(샌안토니오)가 이름을 올렸다.

동부 콘퍼런스에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밀워키), 케이드 커닝햄(디트로이트), 타이리스 맥시(필라델피아), 제일런 브런슨(뉴욕), 제일런 브라운(보스턴)이 선발로 뽑혔다. 팬 투표에서는 돈치치가 가장 많은 340만2967표를 받았고, 아데토쿤보가 321만8398표를 얻었다.

리디아 고·티띠꾼 등 5명 WTGL 스크린골프 출전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와 여자 골프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 등이 미국 스크린 골프 리그인 TGL의 여자부 대회인 WTGL에 출전한다.

TGL을 운영하는 TMRW 스포츠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19일 WTGL 첫 시즌에 출전할 선수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2027시즌에 첫선을 보이는 WTGL에는 리디아 고와 티띠꾼 외에 찰리 헐(잉글랜드), 브룩 헨더슨(캐나다), 렉시 톰프슨(미국) 5명의 출전이 확정됐다.

TGL은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이 주도적으로 만든 스크린골프 리그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해 현재 두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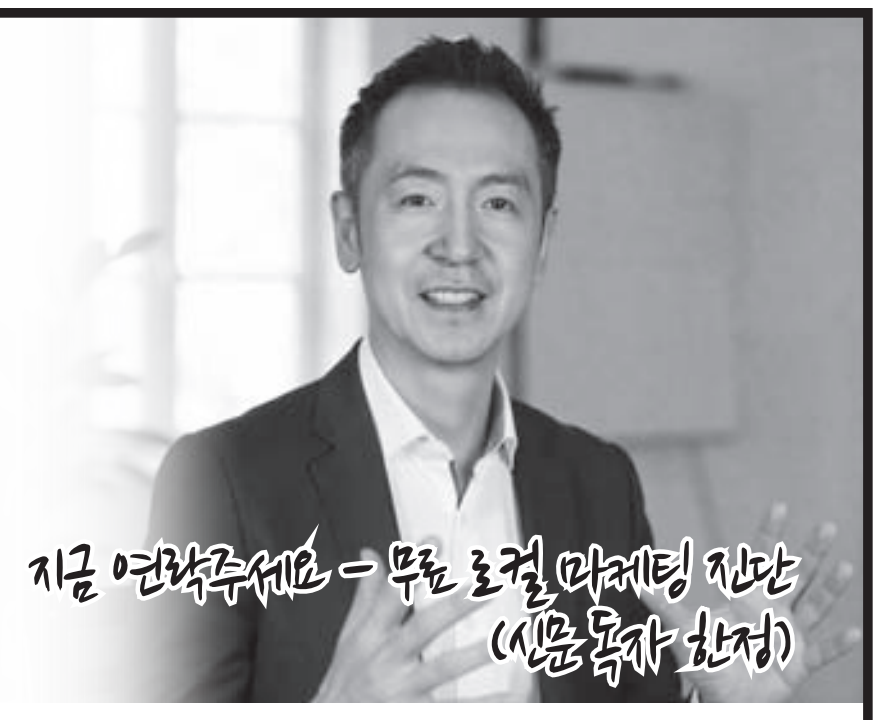
김시우 세계 랭킹 42위 한국 선수 중 최고 순위

김시우(사진)가 남자 골프 세계 랭킹 42위를 기록하며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19일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46위보다 4계단 오른 42위가 됐다.

지난주 44위였던 임성재가 48위로 내려가면서 김시우가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시우는 19일 하와이주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공동 11위에 오르며 세계 랭킹도 4계단 상승했다. 임성재는 소니오픈에 불참했다.

한국 남자 선수의 역대 최고 세계 랭킹은 2008년 최경주의 5위다. 이번 주 100위 내 한국 선수는 김시우와 임성재 2명이다. 안병훈이 105위, 김주형 109위, 김성현 150위 순이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ne) is better off (doing or having something); (~을 하는게) 낫다

(Two friends are at a restaurant ..)

(친구 둘이 식당에서 ..)

Fred: Everything on the menu looks so good.
프레드:차림표에있는음식이전부괘좋아보인다.
Gary: This place just opened up. I was here for the opening.
개리: 이 식당 막 문 열었어. 개업식 때 여기 왔었거든.
Fred: It feels nice in here too. Well I'm up for fish.
프레드: 여기 근사하다. 어쨌든 난 생선 요리가 당기는데.
Gary: If you want fish You're better off ordering the salmon.
개리: 생선 시키려면 연어로 하는게 좋을 거야.
Fred: Is it good here?
프레드: 여기 연어요리 잘 해?
Gary: It's wonderful. You're going to like it.
개리: 아주 잘 해. 너도 좋아할 거야.
Fred: Thanks for the tip. I'll order it.
프레드: 귀띔해 줘서 고마워.그거 시켜야겠다.
Gary: I'm going to have a steak.
개리: 난 스테이크 먹어야겠다.
Fred: Let's look at the wine list.
프레드: 와인 뭐 있나 리스트 보자.
Gary: Yes let's do that.
개리:응.그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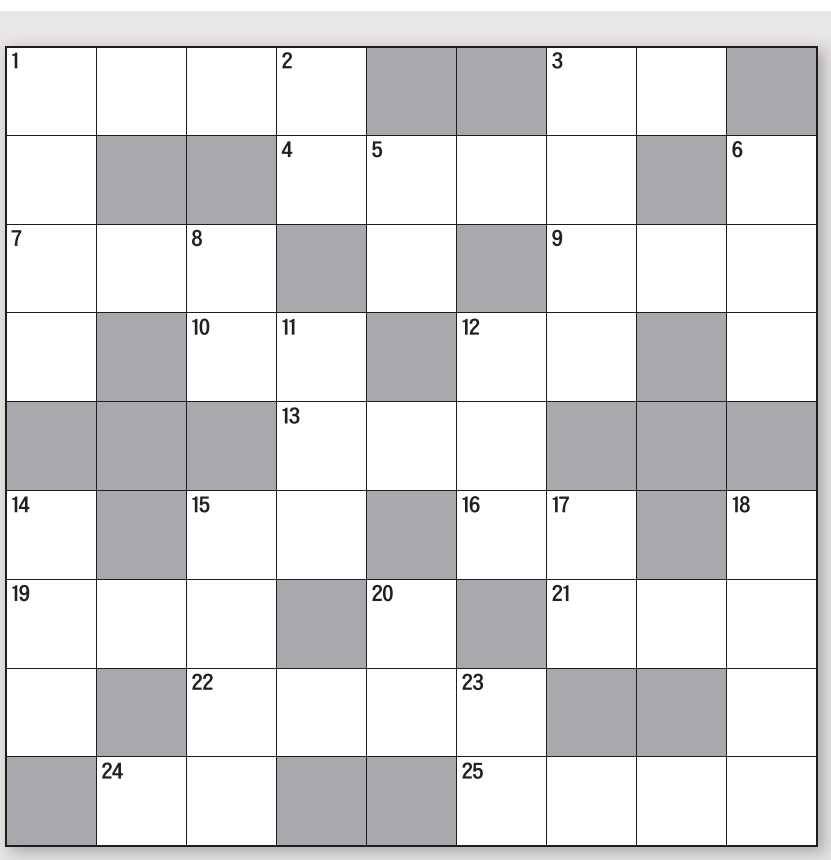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This place just opened: 이 업소는 막 개업했어. "This place just opened last week." (이 업소는 지난 주에 문 열었어.)

*I'm up for (something): (무엇을) 하고 싶다. "I'm up for golf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골프 치고 싶다.)

*Thanks for the tip: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마워. "I went to that bookstore you told me about. Thanks for the tip." (네가 얘기한 책방에 갔었어. 좋은 정보 줘서 고마워.)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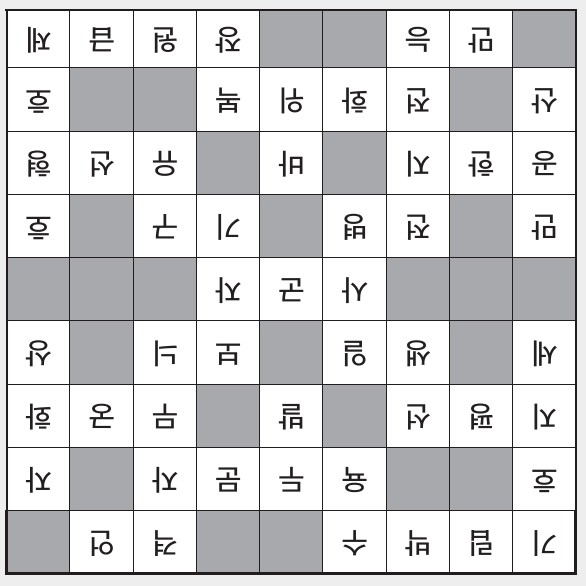


가로열쇠

(1)일어나서 손뼉을 침. 신들린 듯한 그의 열창에 관객 모두가 ~를 보냈다 (3)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금언. 시간은 금이다. 이 ~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4)상스러운 욕설. 그는 술만 마시면 ~를 동원하여 상사를 욕한다. □□문□ (7)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9)우리나라 꽃 (10)세상에 태어난 날 (12)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한자 말 본의(本衣)에서 온 말이죠 (13)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그린 그림.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이죠 (15)찹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를 둥글넓적하게 부친 음식 (16)수소나 헬륨 따위의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공중에 띄우는 물건 (19)집을 짓지 않은 빈터 (21)앞부분을 곡선으로 만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한 형태 (22)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 □화□□ (24)모든 일에 다 능통함. 그는 ~ 스포츠맨이다 (25)과거에서, 갑과에 첫째로 합격함. □원□□

세로열쇠

(1)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음. □호□□ (2)삶아 내어 물기를 뺀 고기 (3)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무늬 (5)머리에 난 털. ~ 상태 불량 (6)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반 고흐는 모두 39점의 많은 ~을 남겼는데, 돈(모델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8)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11)한여름에 뙤약볕에 오래서 있거나 행진, 노동을 하는 경우에 생긴다 (12)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천. 이것으로 물건을 싸서 꾸린 뭉치를 보따리라고 하죠 (14)빈 산에 가득 참. 명월이 ~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15)어떠한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음 (17)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 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18)서로 형이니 아우니 하고 부름. 매우 가까운 친구로 지냄. 호□□□ (20)부피가 매우 큰 돌.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을 쥐어 내미는 동작 (23)옷을 차려입은 모양. 나쁜 날씨는 없다. 준비 안 된 ~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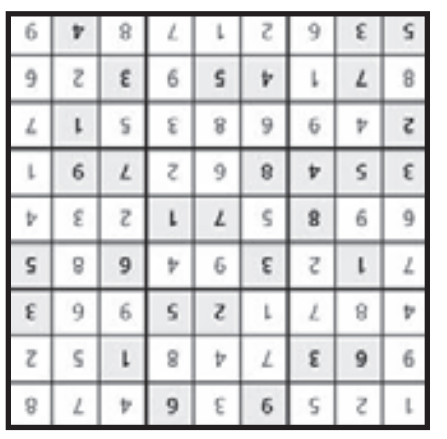
기	림	박	수	욕	두	문	격	언	
호			욕	두	문	자		자	
지	평	선		발	두	무	궁	화	
세		생	일		보	니		상	
			사	군	자	구			
만		전	병		기	구		호	
공	한	지		바		유	선	형	
산		전	화	위	복			호	
	만	능			장	원	급	제	

스도쿠

			9		6			
	6	3				1		
				2	5			3
	1		3			6		5
		8		7	1			
3	5	4	8			7	9	
2							1	
	7		4	5		3		
5	3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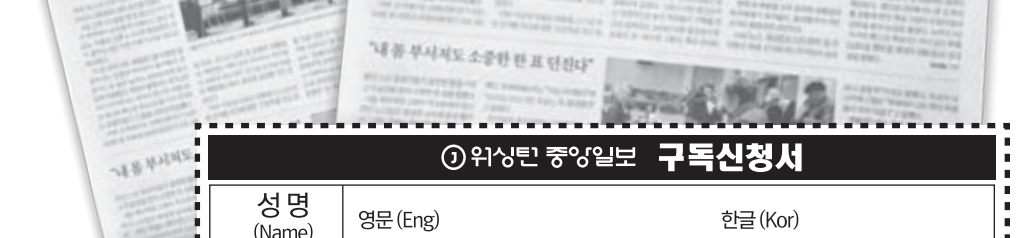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 year)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WBS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점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지압봉 기계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체온 1C상승하면 ↑면역력 40% 상승

지압봉 모션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2,900~~ $2,300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장윤정의 흙표 흙침대

흙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흙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흙표 흙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퀸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따로를 푸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Q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For your eye health EYE MASSAGER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뻑뻑함
눈꼽낌·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히트상품★

마사지 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꿔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쉴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 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1월 구인광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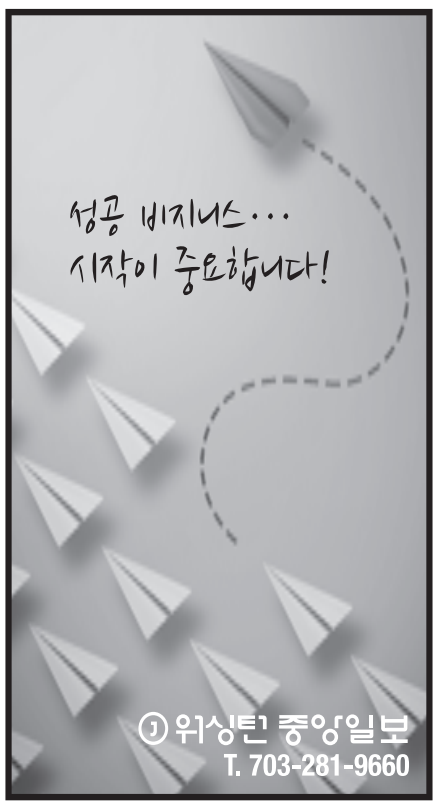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급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몽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 RnRniacct@gmail.com
문의 : 301-468- 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 Upper Marlboro MD
베네핏 :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권 :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 스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타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쿼 스토어 라러리 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토 포함)
301-336-2500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포토맥 싱글홈 렌트 $4,000
방3, 화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컷 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렌트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쿼 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1. 치킨 프렌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등 리스팅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구인/사무/직원모집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타임, 판매 경험자 유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 k546272@gmail.com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 dceye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젼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703-225-5500
이메일 지원 :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 Chantilly, VA 20151
시간 :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센터빌, 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RT-1 콴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 (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콴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 어시스턴트 매니져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 파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703-505-5760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덱,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덱,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근처, 이노베이션팍 쇼핑몰 인근, 교통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1. 게이더스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컷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 (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 2.5, 차고 2, 앤드 유닛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 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 고양이 가능,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 콘도, 업 데이트한 부엌 (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발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방 렌트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잠만 주무실분
703-732-1246

첸틀리 롯데 근처 싱글 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1분 한강 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편리, 주차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뒤 타운홈 2층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에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덱, 큰 창고, 차고2개, 넓은 뒷 마당, 395/495/95번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버크 싱글홈 $975,000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703-813-8949

센터빌 타운하우스 $510,000
방3, 화 2.5,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703-813-894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 2, 지하 올수리,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 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 full bath, 워크아웃, 브래덕/28,66,29 교통요지, 2017 리모델링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 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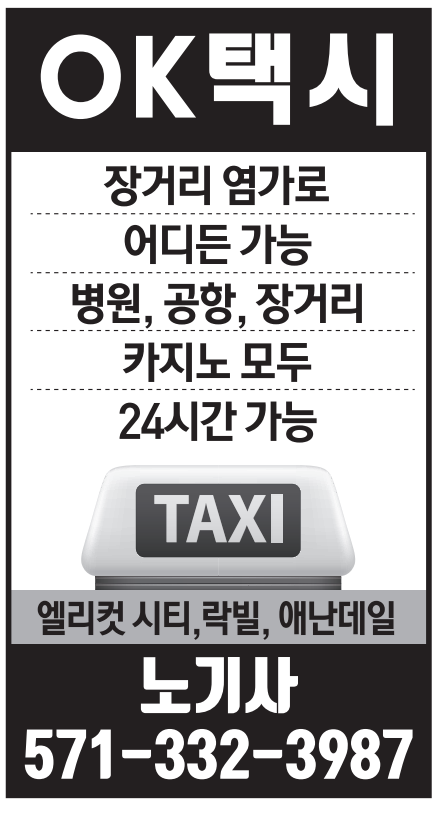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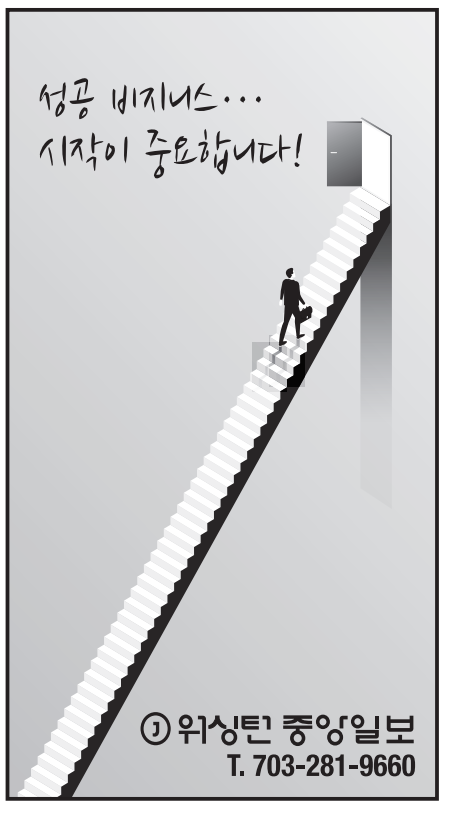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방3, 화2.5, 차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703-919-0472

챈틸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알디 싱글 하우스 $869,000
방 4, 화 2.5, 차고 2, 전체 마루, 굿 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571-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 4, 화 3.5, 차고 2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엔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6, 차고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 5, 화 5.5, 차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 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571-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
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쿼 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케닉 샵
차고 2개, 서비스베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10만불
▶703-928-5990

1. 치킨 프렌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등 리스팅
5.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티, 최고 로케이션 5,000 sf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 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스텐,알미늄) /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 –340–5858 (VA)
443 -980-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AWARDED Porch HomeAdvisor Your Home Improvement Connection BBB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씽크 / 디스포져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썹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챈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폿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발 투자 이민 건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가능
-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학장 : 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부학장 :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info@meridianwish.com www.meridianwish.com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기타 지역

구인

스시맨 & 주방급구
알라스카, 숙식제공
성실하신분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식쉐프 & 스시맨
알라스카,취업결격사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Kim's Acupuncture Cl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훌훌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겸 일식당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SOLD •1BOX	$150/10LBS•1BOX	$100/10LBS•1BOX
$1 대추	$12/lb 대추	$7/lb 대추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제일 편리함
(State st.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2분거리)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½,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 ½,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 ½,
Bay Window 2개, 편리한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 ½,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히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